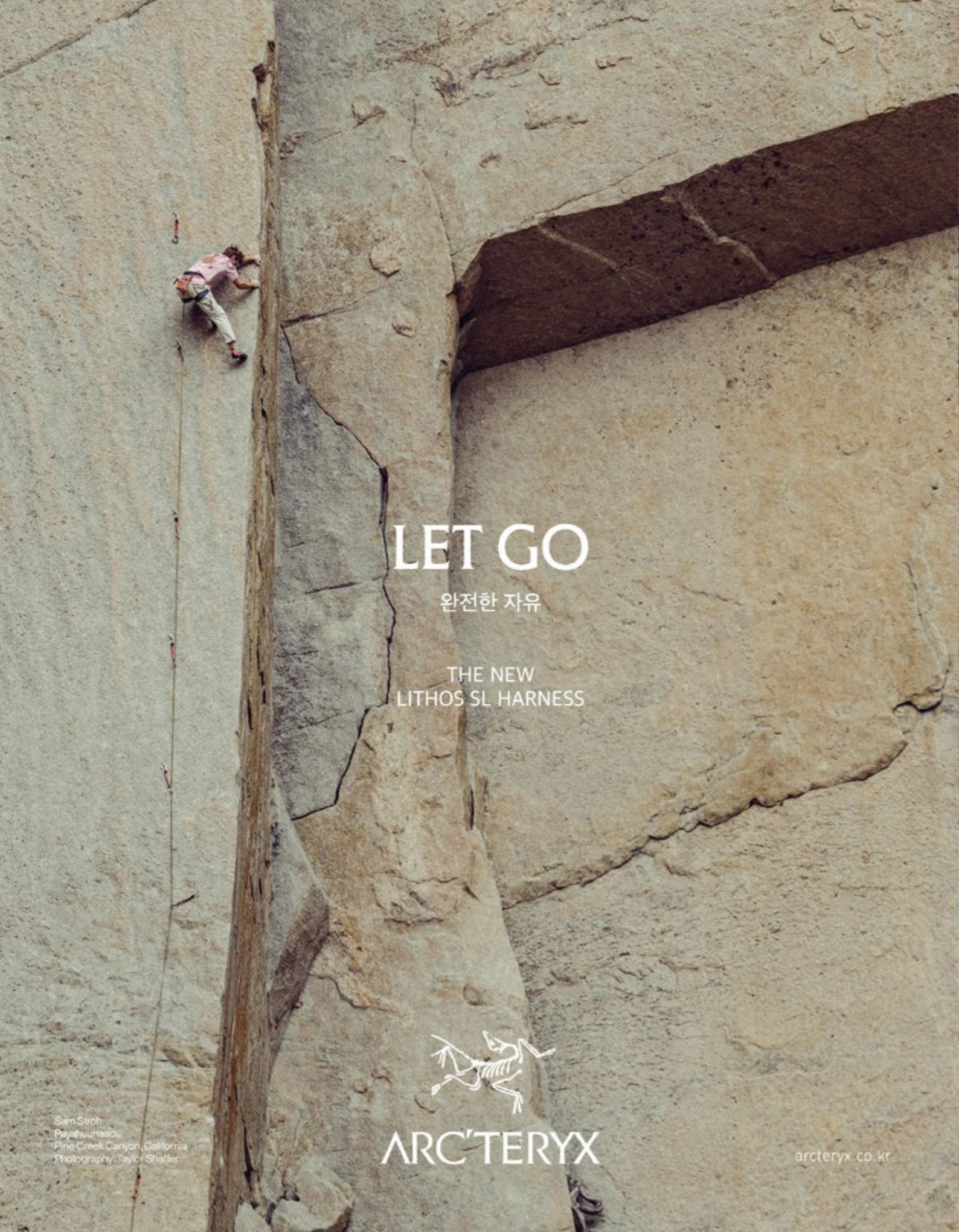


초여름 낭만 캠핑
강진·해남·영암



LET GO

완전한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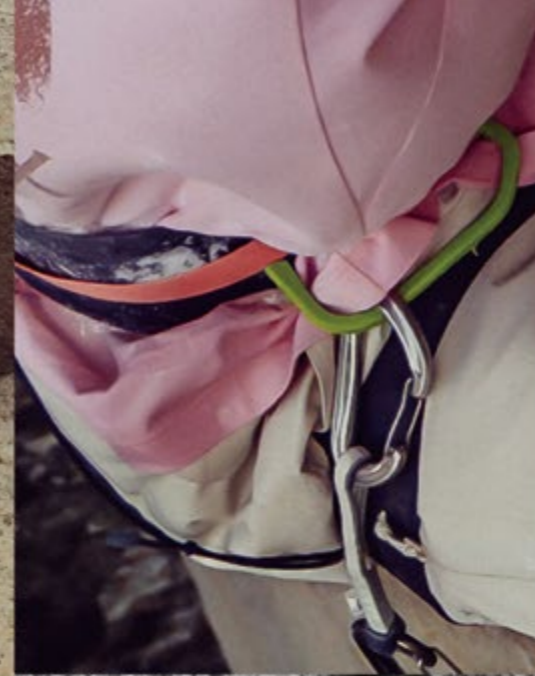
THE NEW
LITHOS SL HARNESS



ARC'TERYX

Sam Stroh
Pine Creek Canyon, California
Photography: Taylor Shaffer

arcteryx.co.kr





이달의 여행

040 초여름 낭만 캠핑 강진·해남·영암

풍성한 계절의 빛을 좇아 길을 나선다.
'강해영 프로젝트'의 제안에 따라 자연으로 깊숙이 들어가
바람을 베고 별을 덮고 누웠다.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캠핑 시즌이다.



AHILO



표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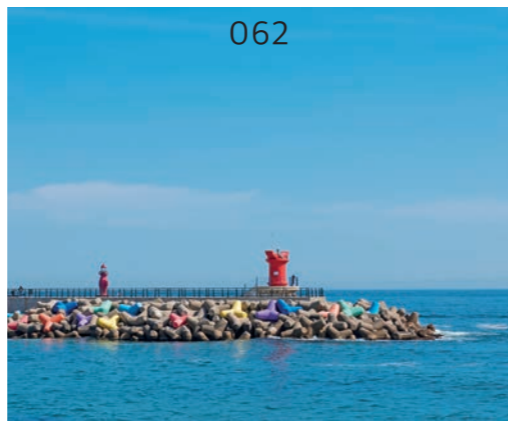
전남 해남 양화마을 청보리밭

해남의 화원반도 별암포구에서 대한조선을 지나 양화마을에
들어서면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경사진 구릉을 따라
완두콩·대파·호밀이 익어 가고, 도로 옆에는 해풍을 맞고
자라는 청보리가 나른하게 춤을 춘다. 밭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청보리밭의 군무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 016 듣는 여행
청보리밭에 이는 바람
전남 강진의 강진만생태공원에서 해풍에 일렁이는 청보리밭의 소리를 담았다.
- 018 촬영지 여행
간헐할 때 돌파하세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 등장하는 광주 송정공원역 근처 철길 건널목은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020 여행자의 공간
문장이 향이 되는 순간, 솔테라이브러리
서울 북촌에 작가의 친필 문장을 따라 향을 감각하는 공간이 들어섰다.
- 022 여행자의 방
애서가의 북스테이,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체류형 북스테이가 문을 열었다.
- 024 한국의 멋
조각우산의 군무
윤성호 우산장 이수자의 조각우산은 지우산을 벽에 거는 오브제로 변주한 작품이다.
- 026 한국의 맛
셋노란 꿀맛
짙은 황금빛을 띠는 여름 제철 과일 참외는 꿀 한 숟갈을 머금은 듯 달콤하다.
- 028 시절, 풍경
숲의 주인들
초여름 숲에서 만난 동물 친구들, 다람쥐·비단잉어·딱새를 카메라에 담았다.
- 034 전국 행사 달력
6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오감을 만족시키는 문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 062 여행의 발견
동해, 내 마음은 파랑
목호, 한섬, 전천, 추암까지 강원도 동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포착했다.
- 078 기차 안 세계 여행
부탄에서 붓다의 미소를 훑치다
해발 3000미터 히말라야 기슭의 고요한 왕국, 부탄으로 순례를 떠났다.



028



062



078



BOOK in BOOK



BOOK in BOOK

made in JEONGSEON
강원도 정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인구 감소 지역 여행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이다. 지역의 옛 풍경을 상상케 하는 공간을 찾아다니며 추억을 회상하고 정선의 현재를 마주했다.

LIMITED EDITION



RULE NO. 8

세대를 넘어 완성된 디테일

DUNHILL 3mg: 타르 3.0mg, 니코틴 0.30mg. DUNHILL 6mg: 타르 6.0mg, 니코틴 0.60mg. DUNHILL 1mg: 타르 1.0mg, 니코틴 0.10mg.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090 함께 여행

취향을 입은 집

홍윤주 건축가와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며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를 채집했다.

114 인터뷰

관계의 예술가 천근성

도시 주변부를 예술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천근성 작가를 만났다.

120 전시 보러갑니다

기다림의 색채

30여년간 숲의 심연을 탐구해 온 작가 이배의 개인전을 조명했다.

128 한국 탐구 생활

프란체스카의 답십리 시간 여행

독일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서울 답십리 고미술 상가를 찾았다.

134 테마가 있는 골목탐험

분재, 한 뼘의 미학

일상에 풍경을 더하는 서울의 감각적인 분재 숲을 소개한다.

140 KTX타고 도보 여행

행신역 맛집 탐험

철도인과 여행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경기도 행신역 앞 골목 맛집 여섯 곳을 방문했다.

146 트렌드 읽기

행운을 삽니다, 러키슈머

불안과 위기감이 커진 시대, 사람들이 돈으로 행운을 사기 시작했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6월의 소식

유쾌한 상상력과 묵직한 질문이 오가는 이야기가 초여름을 풍성하게 채운다.

160 플레이리스트

흥이삭과 떠나는 음악 여행

신곡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흥이삭이 미완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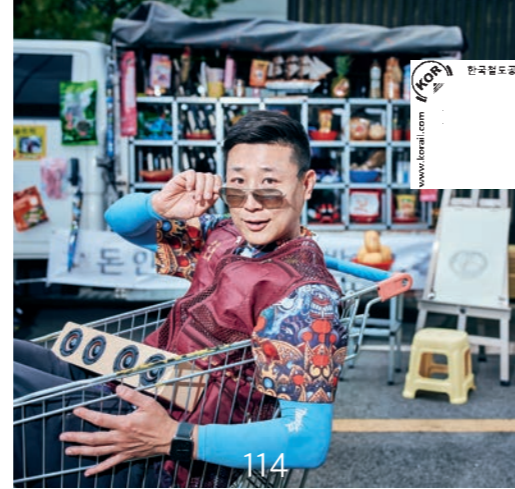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114



120



128



134

Panasonic



축구 레전드 이동국의 선택! REAL PRO MAN1

기간: 6/1 ~ 6/30



4년 무상보증
1년+3년
91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300만원 상당 혜택



MAL1 구매고객
하이원 리조트 숙박권+워터월드 이용권2매 증정 (경품 소진 시 종료)



가까운 매장 찾기

고객상담실
1588-8452
panasonic.co.kr

2026년 06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6호 통권 제264호
2026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Panasonic

신개념
헤어드라이어 탄생,
이제
건조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nanoe™ 나노케어 시리즈



EH-NA0K 차콜



EH-NA0K 미스트그레이



EH-HS0J



EH-KN9L

판매처 : 유명백화점 및 파나소닉코리아 판매대리점 / 문의 : 1588-8452, www.panasonic.co.kr

시차 적응 실패의 산뜻한 반전

5월 초 일주일간 미국 시카고에 다녀온 후 바로 6월호 마감에 돌입했습니다. 무려 14시간의 시차를 어떻게 버텨 낼 지 신경이 곤두설 정도였던 것과 달리 한국 도착 첫날 밤 무난히 잠이 들어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7시가 되자 미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있던 몸이 무너질 듯 잠에 취해 그대로 소파에 뻘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릴없이 잠에 포획되어 꿈속을 헤매다 오전 4시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놀라운 건 더는 1초도 누워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산뜻하게 잠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아침형 인간이 된 것일까, 아직은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찬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시간을 덤으로 얻은 것 같아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가기엔 이르다 싶어 그날 해야 할 일을 적고 요거트를 먹으며 커피를 내리는 사이, 하늘이 투명한 쪽빛으로 변했습니다. 빠르게 모습을 바꾸는 구름 사이로 좌르르 쏟아지는 빛의 입자들! 마감 때면 많게는 한 달에 열 번도 밤을 새우지만 변화무쌍한 하늘의 아침맛이를 들여다본 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울려 퍼지는 새들의 합창. 참새가 가늘고 높은 금속성 소리로 첫 음을 열자 박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유리 종소리를 내며 화음을 넣습니다. 이토록 경쾌한 풍경이라니. 회사에 1등으로 도착한 저는 우아할 만큼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차 적응의 길은 만만치 않아서 점심으로 먹은 김밥이 십이지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이 감졌습니다.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오후. 하지만 다음 날 산뜻한 아침을 맞으리라는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칼럼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혜영 프로젝트로 의기투합한 전남 강진·해남·영암을 찾아 숲속 오토캠핑부터 바닷가 글램핑까지, 바람을 베고 별을 덮고 자는 여름 캠핑의 낭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와이어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는 집라인, 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노를 저어 가는 패들보드, 레이싱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카트 등 캠핑과 함께 즐기 좋은 레포츠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강원도 동해에서는 오래된 항구마을 묵호부터 해가 지면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추암까지, 마음을 과랴게 물들이는 곳들을 소개했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에 고요히 자리한 부탄 왕국도 찾았습니다. 해발 3150미터 기암절벽에 들어선 사원과 부탄의 오래된 마을을 찾아 순례길에 오른 취재팀은 화려한 의상에 기기묘묘한 탈을 쓴 승려들이 역동적인 춤을 추는 체추축제의 생생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물건값으로 그림을 받는 관계 예술가 천근성 작가를 만나 경제적 교환의 법칙을 낫설게 뒤집는 이의 유쾌함을 엿봤고, 홍윤주 건축가와 서울 원서동 빌라촌을 걸으며 오래된 집에 깃든 삶의 지혜와 유머를 포착했습니다. 30여 년간 숲의 심연을 탐구해 온 이배 작가의 개인전 <En Attendant: 기다리며>에도 다녀왔습니다. 숲 덩어리를 쌓아 만든 높이 8미터, 무게 7톤의 설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시는 조각·회화·영상 등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노동 집약적 예술 세계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한 입 깨물면 새콤한 맛이 날 것 같은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들이닥쳤습니다. 9월까지 이어질 더위가 무섭지만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어 이 계절이 좋습니다. 가지 않은 길과 잠들어 있던 시간, 내가 존재하지 않던 곳으로 불쑥 끼어들어도 좋을, 낮이 밤보다 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2026

땅끝해남 수국축제

FRI MON
06.12.-07.06.
 포레스트수목원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아이에게 거대한 고래의 흔적이 남아있는 울산남구 장생포를 보여 주고 싶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고즈넉한 장생포에서 저녁노을을 온몸으로 느끼며 동물과 공존했던 과거의 풍경을 천천히 떠올리면 좋겠다.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부곡길

보현산의 맑은 정기와 싱잉볼의 청아한 울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QR코드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오감을 깨우는 명상 방식이 인상적이다. 일상의 소음을 잠시 잊고 진정한 고요함에 닿는 여정을 함께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6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6월 11일까지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러리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러리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혜택으로 누리는 멤버십 '소노러스 라임' 출시

연간 이용 연 14박 이용 가능	입회 금액 멤버십 3,600만원	창립 혜택 객실 최대 50% 혜택	부대시설 최대 70% 혜택
여유로운 휴식과 여행을 위한 최적의 구성	3천 만원대 멤버십 상품 20년 만기시 입회금 반환	직영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할인 혜택 적용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20년간 할인 적용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삼척·진도·남해 | 소노캄 고양·경주·거제·여수·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천안·단양·청송·변산·제주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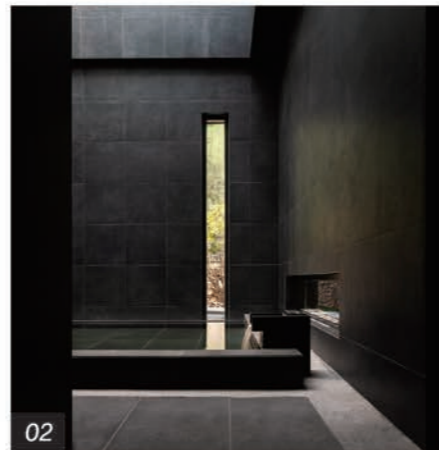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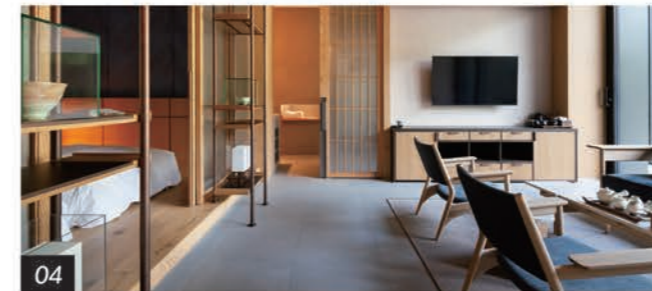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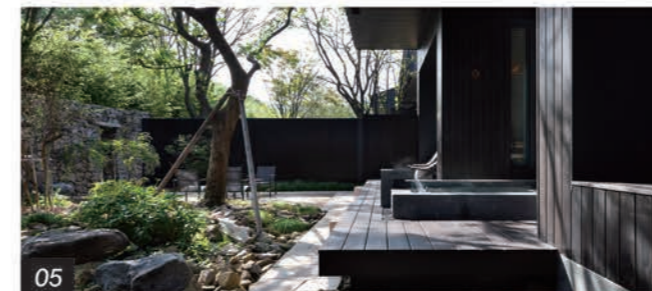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청보리밭에 이는 바람

바람은 형태가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로 존재를 드러낸다.
청보리밭에 이는 해풍을 타고 싸목싸목 여름이 오고 있다.





간헐할 때 돌파하세요

20년째 데뷔 못 한 영화감독 지망생과 트라우마와 사투를 벌이는 영화사 PD가 철길 건널목에서 만났다. 앞을 가로막은 적신호와 차단봉. 무기력하게 갇혀 있을 것인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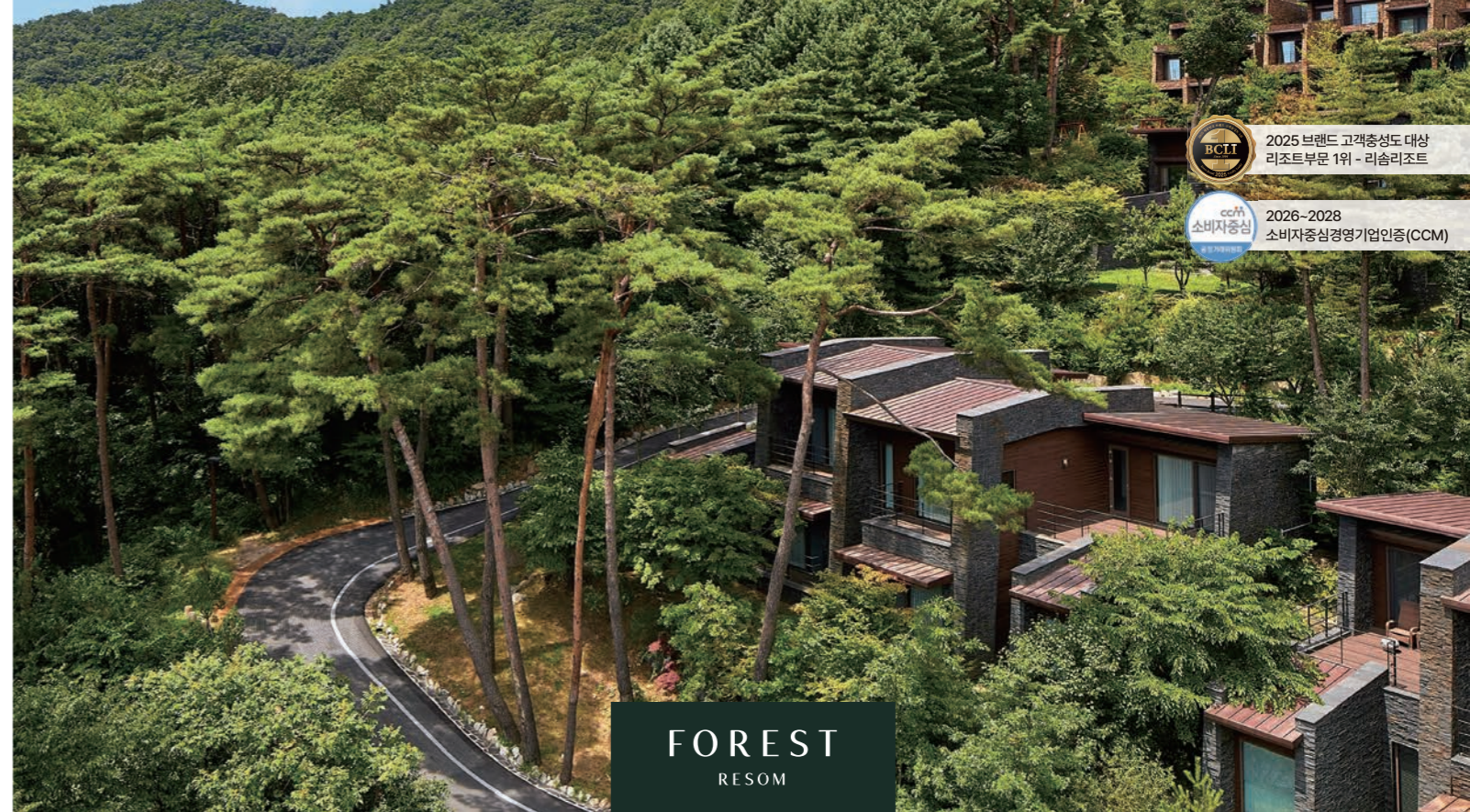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는 사회적 인정과 성취의 잣대에 내면이 잠식된 인물들이 자기 인식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야기의 중심에 황동만이 있다. 영화계 모임 '8인회'에서 유일하게 데뷔하지 못한 감독 지망생이다. 불안을 허세로 감추며 버티는 그의 말과 행동에는 시기와 질투, 분노, 자조가 섞여 있다. 날카로운 비평 실력으로 업계에서 '도끼'라 불리는 영화사 PD 변은아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고요한 절망 속에 갇혀 있다. 실패가 오래 지속되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던 황동만은 변은아를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한다. 냉철한 비평가 변은아 역시 황동만을 만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극 초반부에 황동만과 변은아가 철길 건널목에서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광주 송정공원역 근처의 거리다. 'STOP' 표지판 너머로 두 사람을 가로막은 차단봉에 "간헐할 때 돌파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운전 중 차단기가 내려와 철길에 갇히면 부수고 빠져나오라는 뜻이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이 문구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실 새 없이 떠드는 황동만에게, 엄청난 분노와 절망을 이겨 내기 어려워 무력감으로 '자폭하고 싶은' 변은아에게 인생을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하는 위로처럼 들린다. 참고로 "간헐할 때 돌파하세요"라는 문구는 몇 해 전 "간헐이 이 차단봉을 뚫고 나가세요"로 바뀌었다. <모자무싸>는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집필한 박해영 작가의 신작이다. 전반부는 황동만과 변은아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성실하게 풀어낸다. 과거의 실패를 너무 오래 끌어안고 사는 사람, 사회적 기대에 눌러 자신을 점점 잃어 가는 사람, 내면의 깊은 공허와 자기혐오를 숨기고 사는 사람 등 그들이 드러내는 밑바닥 감정은 우리에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작가가 등장인물에게 못된 드라마를 보여 자문하게 된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투명하게 직시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돌파할 것인가, 갇힌 채 좌절할 것인가.



<모자무싸>는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하던 영화감독 지망생이 인생에 과부하가 걸린 영화사 PD를 만나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평온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다.

© JTBC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 리솜리조트
2026-2028 소비자중심 소비자중심경영기업인증(CCM)

일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머물고 싶은 곳 *분양가 인상 임박 리솜리조트 통합 특별회원 모집

한 곳 한 곳 제대로
테마가 다른 리조트

제천, 안면도, 덕산, 제주에 위치한 리솜리조트는 각기 다른 천혜의 자연환경과 콘셉트로 다양한 휴양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 곳 한 곳 특별한 테마를 가진 식음, 문화, 휴양 콘텐트로 가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회원의 만족도가 높다.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 리솜(개발예정)

리솜리조트의 다음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동해 최북단,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에 약 450실 규모의 웰니스 리조트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제주 퍼시픽리솜 또한 향후 특급 호텔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양회원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재계순위 35위) 계열사
안정성 1위 '리솜리조트'

리솜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호반호텔&리조트는 2025년 기준 국내 재계 순위 35위 호반그룹의 계열사로서 기업 신용평가 A+ 등급 등 우수한 신용도를 갖고 있다. 또한, 회원권 분양 및 회원서비스팀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원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리조트

리솜리조트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리솜리조트는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등 5개 조사 항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소비자의 직접 투표로 평가 받아 보다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라이빗 에코리조트 포레스트 리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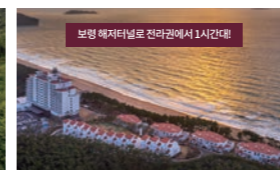
'이런 곳에 어떻게?' 처음 오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500m 원시 숲길에 자리한 한 동의 고요한 빌라 객실, 숲에서 즐기는 스파, 쏟아지는 별빛, 새소리에 잠깨는 아침까지 자연이 허락한 지상의 천상휴식을 경험하세요.

리솜리조트 통합회원권 신규혜택

- 1. 회원가의 최대 50% 할인(1~2년)
- 2. 스파/워터파크 이용 무료(1년)
- 3. 스파 등 부대시설 최대 60% 상시할인



문화감성형 휴양리조트 포레스트 리솜&레스트리(제천)



로맨틱 선셋리조트 아일랜드리솜(안면도)



해양문화 테마파크 퍼시픽리솜(제주)



세계적 온천리조트 스펀라스 리솜(덕산)



동해 최북단 휴양지 화진포 리솜(개발예정)(고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카탈로그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시 경우,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주소를 남겨주세요. M. 010-9646-7600

상담 T. 02-568-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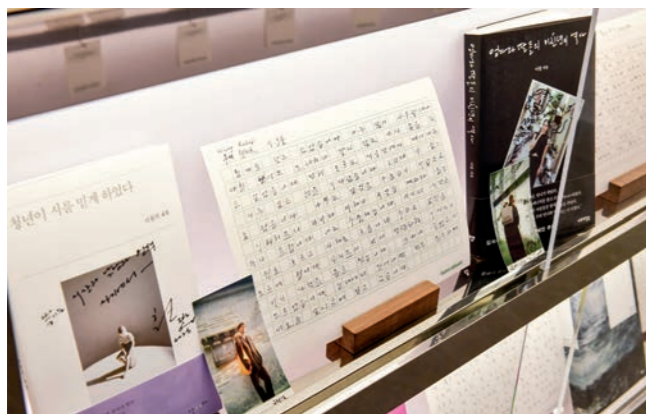
We aspire to be a library that gathers and records

quietly becom

people work love, and die. - Albert Camus

문장이 향이 되는 순간, 솔테라이브러리

서울 북촌에 향과 문학이 만난 공간이 들어섰다. 작가의 친필 문장을 따라 향을 천천히 감각한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북촌 계동에서 한옥 지붕을 엮은 연회색 벽돌 건물에 이시선을 붙든다. 향과 문학을 결합한 브랜드, 솔테라이브러리(Salté Library). 소금도서관의 주춧돌 대표와 이야기장수 출판사의 이연실 대표가 손잡고 지난 4월 17일에 문을 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온통 새하얀 공간이 펼쳐진다. 투명 아크릴 판 수납장을 층층이 쌓아 올린 기동형 구조물 사이로 유일하게 검은 필체의 문장만이 선명하게 빛난다. 마치 신비로운 문학의 숲 한 가운데 들어선 듯하다. 이어지는 통로 한편에는 김애란, 이재니, 이랑 등 한국작가 28명의 책과 친필 원고가 놓여 있다. 작가들이 향수를 맡고 떠오른 심상을 적은 글로, 저마다 다른 필체에서 개성이 묻어난다. '오후 2시의 책방' '사랑의 첫 페이지' 같은 제목이 곧 향의 이름이다. 오은 시인은 '오렌지팝'에 대해 "어떤 반가움이 이토록 상큼할 수 있을까요. 오렌지를 한입 가득 넣으면 폭죽이 터지기 시작해요"라고 썼다. 톡톡 튀는 문장에서 오렌지 껍질을 벗길 때 퍼지는 달콤쌉싸름한 향이 그려진다.

문장을 읽고 향이 공명해졌다면, 이제 직접 맡아 볼 차례다. 통로 끝에서 글로 먼저 만난 23가지 향수를 시향할 수 있다. 이 중 솔테라이브러리만의 특별한 라인은 '작가 에디션'이다. 이슬아, 이욱토, 성해나, 김하나, 황선우 등 작가 다섯명과 협업해 만든 것으로, 선물 세트에는 작가의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한 굿즈를 더했다. 과일 책갈피로 유명한 이욱토 작가는 검은 백조 책갈피를 제작했고, 사인을 할 때 '사랑과 용기를 담아'라는 문구를 써 주는 이슬아 작가는 작품 속 문장을 엮어 미니 북 '사랑과 용기에 대하여'를 만들었다. 향에 취한 걸까, 문장에 취한 걸까. 문득 공간 한편의 책을 꺼내 읽고 싶어진다. 문학과 향을 함께 경험하는 솔테라이브러리는 연남과 성수에서도 만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4길 24(솔테라이브러리 북촌)

제작 지원 청담셀의원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 이시형 명예원장

즐기세포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다

단순히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과 이시형 명예원장을 만나 건강 수명을 늘려 젊게 사는 비법을 들었다.

웰빙 트렌드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항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즐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에 특화된 청담셀의원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선 면역력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과 즐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명예원장과 항노화 즐기세포 치료 스페셜리스트 조찬호 대표원장에게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두 분 모두 안티에이징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 치유력'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항상성과 재생력,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의 근간입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항노화 의학도 결국 자연 치유력과 회복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즐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을 설명할 때 자연 치유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연 치유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시형 명예원장** 누구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병을 막고 극복하는 '방어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 체력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만, 방어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면역력, 자연 치유력과 연관된 방어 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 기반이 흔들린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른바 '건강 회색 시대'에 있는 거죠. 방어 체력을 살펴야 한다는 이 명예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과 재생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장수 비결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꾸준한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만성피로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게 중요하죠. **조찬호 대표원장**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노화가 누적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억치나 면역력의 개인차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를 병행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즐기세포 치료를 들 수 있어요.

즐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즐기세포 치료는 본래 몸이 가진 회복 시스템을 돕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담셀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 패턴을 다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부터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 관리 '활셀(活Cell)'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도 수차례 즐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 제 몸에서 채취한 즐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관리는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시형 명예원장**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식사와 수면, 마음가짐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 출발점이 아닐까요. **조찬호 대표원장** 즐기세포 기반 접근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의학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복 기반을 끌어올려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늘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애서가의 북스테이,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숲에 둘러싸여 책을 읽고 아침을 맞는 하루. 애서가들이 꿈꾸는 공간이 생겼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문을 연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성지이자 지식인들의 토론장이었던 곳, 1966년에 문을 연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4월에 선보인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초소책방으로 친숙한 문화 플랫폼 더숲이 새롭게 소개한 체류형 북스테이이다. 60년 전에 지은 건물 골조를 살리면서 인테리어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세련된 감각이 돋보인다.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북한산 능선을 따라 일곱 채의 건물이 자리한다. 과거 담론의 장이었던 ‘대화의 집’은 세미나와 예식 등이 열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내일을 위한 집’은 교육 및 워크숍 공간으로 운영한다. 강원용 목사 사택이었던 ‘여해의 집’은 연수자들의 숙박 시설로 바뀌었다.

숲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하얀색 본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실내는 따뜻한 나무 소재로 마감해 아늑한 느낌을 주고, 건물 곳곳의 커다란 통창으로 북한산의 사계절이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온다. 3층 객실 복도에는 숲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서가 공간 ‘사이서가가’ 자리하고, 맞은편 ‘사이마루’에서는 명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객실 32개에는 텔레비전을 두지 않은 대신 연필과 종이를 비치해, 디지털 기기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책에 몰두하고 사색에 잠기기 좋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에서의 하루는 이른 아침 숲길을 산책하며 시작된다. 사이마루에서 요가와 명상을 한 뒤 4층 라운지에서 북한산 능선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다. 1층 ‘더숲 다이닝’이나 베이커리 카페에서 조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해 질 무렵에는 루프톱에서 서울 전경을 한눈에 담아도 좋다. 6월 15일까지 열리는 개관전 <숲을 거닐다>도 놓칠 수 없다. 국내 자연 미술 작가 23명의 설치·조각 작품이 북한산과 어우러져 숲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든다. 도심 속 숲에 머무르며 문학적 감수성을 깨우고 싶다면 더숲 아카데미하우스가 제격이다.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35



강릉, 천년의 문을 지나 국보와 보물을 만나다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 명주동 골목, 강릉단오제까지, 싱그러운 계절 6월을 맞아 강원도 강릉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2026년과 2027년은 강릉 방문의 해. 6월의 추천 테마는 ‘천년의 문을 지나, 국보와 보물을 만나다’이다. 여정은 강릉 역사 및 전통문화의 중심인 강릉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고려 태조 19년(936)에 창건한 임영관은 당시 총 83칸 규모의 웅장한 객사 건물이었다. 현존하는 객사문 중 가장 오래된 임영관 삼문은 국보로서 강릉의 오랜 역사와 품격을 상징한다. 간결하면서도 당당한 배흘림기둥이 천년의 세월을 버텨 온 강인함을 보여 준다. 그 곁에 자리한 칠사당은 1632년에 중건한 조선 시대 지방 행정 관아로, 일곱 가지 공무를 살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두 곳은 천년 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강릉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며 골목 탐험을 하다 보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 인근에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는 명주동 골목이 있다. 오래된 주택과 아기자기한 공방, 개성 넘치는 카페가 공존하며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 공방에서는 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여행의 허기를 채워줄 미식 코스도 빼놓을 수 없다. 전통 시

장의 정취가 살아 있는 강릉 서부시장은 장칼국수와 감자옹심이 같은 강릉 대표 토속 음식을 맛보려는 여행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고 싶다면 임당동성당을 추천한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5년에 완공되었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다. 실내는 조광호 신부의 유리화 작품이 뿜어내는 오묘한 색채로 가득 차 저절로 숙연한 마음이 든다.

6월, 강릉에 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축제,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것이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남대천 일대에서 화려한 무대가 막을 올린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관령 국사성황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올리는 제례를 시작으로 국, 관노가면극, 농악, 전통놀이, 민속 체험 등이 차례로 펼쳐진다. 특히 수리취떡 나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대회, 단오 장터 등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을 둘러본 뒤 강릉단오제까지 즐기면 강릉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체험하는 특별한 여행이 완성된다.

제정: 이은솔 기자



조각우산의 군무

윤성호 우산장 이수자는 지우산을 벽에 걸 수 있는 '조각우산'으로 개발했다.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지우산을 반원형 오브제로 변주한 발상이 돋보인다. 벽면에 펼쳐진 색색의 조각우산이 경쾌한 군무를 이루고, 정교한 대나무 살과 은은한 오방색 한지가 어우러져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워터 슬라이드 타고 강릉 바닷속으로 풍덩

강원도 강릉시는 울여름 해수욕장을 보다 안전하고 차별화된 테마·힐링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백사장으로 달려올 때, 강릉의 여름 낭만은 시작된다. 올해 강릉의 해수욕장은 언제 문을 열까? 경포 해수욕장은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51일간, 그 외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개장할 예정이다.

강릉시의 2026년 해수욕장 운영 방침은 '보다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테마·힐링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 가족 단위 피서객이 마음 놓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대폭 늘리고, 강릉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콘텐츠도 확충할 계획이다. 오리바위 일원에는 지난해에 큰 호응을 얻은 플로팅 브리지를 기존 130미터에서 150미터로 연장하고, 테마형 색상을 적용해 이색적인 해상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오리바위 진입부에는 다이빙 명소임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을 세워 여행자를 반길 것이다. 균형 잡기, 제기차기 등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

련해 강릉 바다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백사장 일원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조립식 해수 풀장 3동, 유아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 놀이터 등 종합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대형 풀에는 어드벤처 존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아 풀에는 뉘시놀이 등 체험형 놀이 기구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해변 모래 놀이터는 아이와 어른이 모두 좋아할 만한 공간이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 주는 차양 시설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부모들은 그늘 아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힐링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안전과 즐거움, 낭만을 모두 챙긴 강릉의 해수욕장은 2026년 여름, 우리가 찾던 가장 완벽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파도가 건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울여름 강릉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



샛노란 꿀맛

고온성 작물인 참외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경북 성주에서 특히 잘 자란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질은 황금빛을 띤 참외가 맛이 좋다.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꿀 한 숟갈을 머금은 듯 입안에 달콤함이 퍼진다. 수분과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참외는 갈증과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

2026 국립농업박물관 소장품전

Blooming:
Where Flowers
Meet Culture



수능에서 핀

나날의 꽃

2026.6.9.TUE — 10.5.MON
기획전시실

숲의 주인들

불현듯 등장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숲의 주인들.

등을 휘감은 줄무늬 외투, 블랙사파이어 같은 눈동자. 숲을 감시하는 다람쥐 한 쌍.

2025년 5월 경기도 과천

꼬리를 흔들며 계절을 유영하는, 단속 없이 흐트러진 연못빛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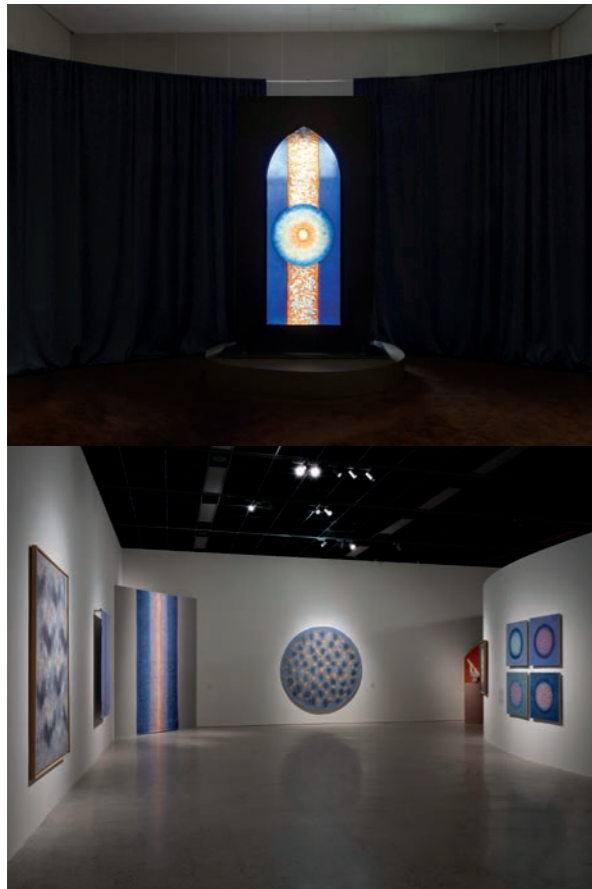
2026년 5월 충북 충주





철새 없이 새끼 입에 먹이를 물어 나르는 숲의 사냥꾼. 노련한 딱새의 모성.
2025년 5월 전남 영암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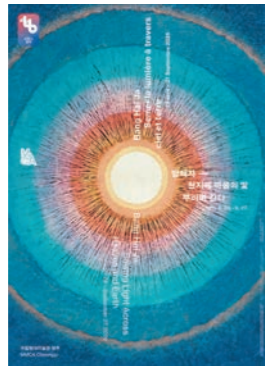
© 국립현대미술관

〈방해자-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

청주 04.24~09.27

평생에 걸쳐 빛을 사유한 방해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다. 작가는 내면의 빛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자 회화를 비롯해 벽화, 판화,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연마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4점 중 하나인 '빛의 탄생' 재현작을 시작으로, 전시장 동선을 따라가며 그가 탐구한 빛의 세계를 마주한다. 시대별 주요 작품 67점과 아카이브 자료 200여 점을 훑는 동안 오디오 가이드를 맡은 배우 이청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관람객을 안내한다.

장소 충북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문의 043-261-1400



© 서울시립미술관

〈몸을 위한 간주곡-소목장세미〉

서울 04.02~2027.05.3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미술관 관람 경험에서 간과하기 쉬운 몸에 주목한 전시를 개최한다. 참여 작가인 소목장세미는 전통 소목장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나무를 주재료로 한 작업을 통해 신체 감각과 일상, 공동체적 경험을 탐구했다. 등을 굴리며 지압하고 음악을 듣거나 향을 느끼는 '등 굴리기 스피커'와 '등 굴리기 향 분사기, 보드에 올라 중심을 잡고 쇠구슬을 목표 지점으로 옮기는 '밸런스 보드-균형 연습'을 비롯해 총 8점의 신작을 공개한다.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문의 02-2124-5201



SHOW



〈사사로운 사서〉

서울 06.20~28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어느 여름날, 도서관의 보존 서고가 침수된다. 버려질 날을 기다리는 책이지만 사서들은 폐기 대신 복원을 선택한다. 임시 휴관을 결정하고 도서 복구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서들의 대화 속에서 미묘한 감정과 숨겨진 이야기가 미세한 틈 사이로 하나둘 새어 나온다. <99% 천재일기> <잘못된 성장의 사례> 등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강현주 연출가의 연극으로, 도서관 자료실 실장役に 이지현, 수서팀 팀장役に 손지윤이 출연해 열연을 펼친다.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



〈나의 박물관(MYSEUM): 타악〉

전국 05.03~11.14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지역과 박물관을 잇는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 '나의 박물관(MYSEUM)'을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타악'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6월에는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연희 커넥트' 이율이 '더구니스크루'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협업 무대를 선보이고,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신명과 개성을 표현하는 '타악집단 일로'가 관객을 만난다. 11월까지 춘천, 청주, 전주, 익산 등에서 릴레이 공연이 이어진다.

장소 전국 국립박물관 문의 1544-5955





2026 강릉단오제

강릉 06.15~22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는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올해는 '폴리니, 단오다'라는 주제 아래 근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축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강릉단오제가 지닌 치유의 의미를 알린다. 단오굿·강릉관노가면극 등의 행사가 연이어 펼쳐지고, 수리취떡 맛보기와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린다.

장소 강원도 강릉 남대천 행사장
문의 033-641-1593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

고양 06.13~14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의 승전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하는 고양행주문화제가 38회를 맞는다. 먼저 조선 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가 행주 출정식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유명한 한국민속촌 출신 배우들이 상주하는 행주맨돌마을에서는 다양한 영웅을 만나 조선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략 화기인 신기전과 비격진천뢰 등을 현대 기술로 재현한 '행주 드론 불꽃 쇼도' 감상할 수 있다.

장소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 역사공원 및 행주산성 일원
문의 1577-7766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기차 타고 가는 전국 축제 총정리

기차와 연계 교통으로 즐기는 6월의 전국 축제를 총정리했다.

- 2026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6월 24일~28일
장소 서울 코엑스
찾아가는 법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랑지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해 봉은사역 하차. 9번 출구로 나온다.
-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
기간 6월 12일~14일
장소 충남 서천 한산모시관
찾아가는 법 서천역에서 31·36·310번 버스를 타고 한산모시관 정류장 하차(30분 소요).
- 제4회 강진수국길축제**
기간 6월 26일~28일
장소 전남 강진 보은산·랜드공원 및 보은산 일원
찾아가는 법 강진역에서 차로 7분.
- 2026 강릉단오제**
기간 6월 15일~22일
장소 강원도 강릉 남대천
찾아가는 법 강릉역에서 944번 버스를 타고 성산치안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기간 6월 13일~21일
장소 강원도 동해 무릉별유천지
찾아가는 법 묵호역에서 동해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무릉별유천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2026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
기간 6월 12일~27일(금·토요일)
장소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찾아가는 법 구미역에서 도보 3분.
- 2026 부산모빌리티쇼**
기간 6월 26일~7월 5일
장소 부산 벡스코
찾아가는 법 부산역에서 1001번 급행 버스를 타고 센텀시티역·벡스코 정류장 하차. 또는 부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 센텀시티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온다.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6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7월 3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천년의 빛깔, 공예로 잇다 2026 전남공예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전남공예페스타가 2026 공예주간을 맞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공예로 물드는 나주의 여름

공예를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전국 단위 축제, 2026 공예주간이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공예주간은 지역의 공방, 갤러리, 문화 공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공예 문화를 일상 가까이로 끌어오는 행사다. 전시와 체험, 마켓,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창작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2026 공예주간을 맞아 한국 전통 색채의 미감을 간직한 전남 나주에서도 특별한 공예 축제가 열린다. 2026 전남공예페스타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일원에서 펼쳐지는 것. '천년의 빛깔, 손끝의 온기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공예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간과 손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제작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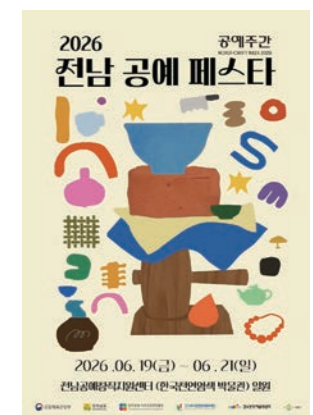
축제 첫날인 19일에는 공예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화 공예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천연염색 쿠션 만들기, 목재 흔들의자 가공하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의 철학과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공예의 실용적·예술적 가치를 탐구한다. 20일과 21일에는 폭넓은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나주의 전통 색채를 활용한 쪽 염색 체험을 비롯해 목공예, 유리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클래스가 현장을 채운다. 관람객은 직접 도구를 손에 쥐고 재료를 다듬으며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손의 온기와 창작의 기쁨을 느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전남 곳곳에서 활동하는 공예 작가들의 '연대 전시'다. 완성된 작품만 보여주는 일반 전시와 달리, 나무를 깎고 흙을 빚는 작가들의 도구와 작업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함께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정교한 손길을 거쳐 공예품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나는야 꼬마작가'에서는 클레이를 활용해 공예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작은 손으로 빚은 결과물을 하나의 전시물로 완성하는 과정은 어린 창작자들에게 성취감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지역과 공예, 사람을 잇는 거점

전국 곳곳에서 공예주간이 활기를 띠는 데에는 공예창작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 지역 공예 문화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이곳은 2019년 경기도 여주를 시작으로 전남 나주, 경남 진주, 충북 청주, 경남 김해 등 전국 다섯 곳에서 운영한다. 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 공예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과 상품화, 전시와 유통까지 폭넓은 영역을 지원한다.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6 전남공예페스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컨설팅을 제공하고, 뮤지엄 숍 입점이나 온·오프라인 유통 연계를 통해 지역 공예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또한 워크숍 공간을 갖춰 공예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예트렌드페어와 지역 축제 참여를 지원해 더 넓은 시장과 연결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공예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패브릭 프린터(GTX), 컴퓨터 자수기, UV 프린터 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교육부터 천연염색 워크숍까지,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을 잇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이제 막 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연결의 시작점이 되어 줄 2026 공예주간. 올여름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가 제안하는 공예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는 건 어떨까. 2026 공예주간 프로그램은 인스타그램 계정(@koreacraftweek)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6 전남공예페스타

기간 6월 19일~21일
장소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원
문의 070-4276-8589

초여름 낭만 캠핑 강진·해남·영암

꽃이 진 자리마다 초록 잎사귀가 돋았다.
노랑에 가까운 연두부터 한없이 깊은 초록까지, 풍성한 계절의 빛을 좇아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전남 강진·해남·영암. '강해영 프로젝트'의 제안에 따라
자연으로 깊숙이 들어가 바람을 베고 별을 덮고 누웠다.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캠핑 시즌이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목포역에서 목포보성선으로
갈아타면 강진, 해남, 영암에 닿는다.



1

가족캠퍼의 두 번째 집 강진

내륙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진은 만을 사이에 두고 험한 산줄기가 팔(八)자로 지나간다. 산은 바람을 막고 다도해는 높은 파도를 막아 강진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꽃이 지고 초록이 다채로운 계절이 오면, 이즈음 좋은 것은 모두 바깥에 있으니 밖으로 나가라던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초록이 깊어져 무감각해지기 전에 시 같은 일상을 만나러 캠핑을 떠난다.

캠핑장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풍경, 교통 접근성, 부대시설, 청결도, 주요 관광지와의 거리 등등. 강진만 서쪽 산자락에 조성한 청자촌 오토캠핑장은 강이나 바다에 면하지도 않고, 숲에 둘러싸인 것도 아니지만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캠핑족 사이에서 '두 번째 집'으로 불릴 정도로 재방문율이 높다. 캠핑장에 도착해 마주한 첫 풍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남성 한 명이 열 살 남짓의 어린이 예닐곱



2

1가우도 정상의 청자타워와 대구면 저두리를 잇는 길이 약 1킬로미터의 집트랙. 2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로 꾸민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명과 함께 놀고 있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아이들끼리 친해졌고, 어른들이 돌아가며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 취객의 주장이나 시끄러운 음악이 아닌, 청량한 아이들 웃음소리가 머문다. 청자촌 오토캠핑장은 두 구역으로 나뉜다. 1캠핑장에는 다양한 콘셉트의 캐러밴과 캠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이지캠핑 사이트, 그리고 오토캠핑 사이트가 있고, 2캠핑장은 오토캠핑 전용 사이트로 운영한다. 미끄럼틀이 있는 메인 놀이터 외에 트램펄린과 모래 놀이터가 있고, 여름에는 에어튜브 물놀이 시설도 운영한다. 캠핑장 맞은편에는 고려청자박물관과 한국민화뮤지엄이 자리하고, 차로 10분 거리에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저마을과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춘 가우도가 있다.

캠핑장 옆 고려청자와 조선 민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강진에서는 고급 고려청자를 생산했다. 한국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청자의 80 퍼센트를 강진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청자 문화가 화

려하게 꽃피었다. 청자촌 오토캠핑장 맞은편에는 고려청자의 발생과 발전, 쇠퇴까지 500여 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고려청자박물관이 있다. 6500점에 달하는 소장품 중에는 '청자 음각 앵무문 발' '청자 표형 주자'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청자 상감 매로 학점문 사이호' 등 국보급 유물이 다수 속해 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2층 상설 전시실을 먼저 관람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로부터 삼강청자가 쇠퇴하고 분청사기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온전한 형태보다 도편이 많지만, 색과 문양의 변화를 통해 고려청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고려청자를 장식한 꽃문양을 테마로 구성한 특별 전시실과 명문이 새겨진 고려청자를 전시한 기획 전시실을 지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로 꾸민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까지 둘러봤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완성된 도자기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조각 체험과 흙을 가래떡처럼 만들어 원하는 모양으로 쌓아 올리며 그릇을 만드는 코일링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 © 포트원

한국민화뮤지엄에도 들렀다. 국내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인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의 자매관이다. 전문 해설가를 따라 전시장을 돌아보며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의 상징과 의미를 찬찬히 뜯어봤다. 뮤지엄 1층에는 민화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민화 체험장, 4D 영상 체험실, 뮤지엄 숍 등이 있고 2층에는 현대 민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기획 전시실과 성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춘화방이 자리한다. 뮤지엄 숍은 민화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로 북적이다. 에코백, 쿠션, 부채, 목함 등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선택해 채색하는 작업이라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4500여 점의 소장 유물 중 250여 점을 상시 순환 전시한다.

걸어서 들어갔다 날아서 나오는 가우도

가우도는 강진만이 품은 10여 개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외딴섬이었는데, 서쪽 도암면 망호선착장을 잇는 다산다리와 동쪽 대구면 저두리를 잇는 청자다리가 놓이면서 관광지로 거듭났다. 두 다리 모두 차량통행이 금지된 보행교라 섬 안에서는 걸어서만 다녀야 한다. 덕분에 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청자다리 입구에서 돌레길인 함께해길을 따라 가우도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데는 1시간 10분, 입도 후 모노레일을 타고 청자타워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간 50분가량 걸린다. 다산다

리 쪽에 모여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황가오리빵 굽는 집에 들른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섬을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할 생각으로 가우도에 들어갔다. 섬에 닿자마자 왼쪽으로 제트보트 탑승장과 모노레일 승강장이 보인다. 바다 위에서 물살을 가르며 제트보트를 즐기거나 패들보드를 타고 강진만 바다를 유영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오른쪽으로 난 함께해길로 들어섰다.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초여름의 청량함을 더한다. 출렁다리 앞에 섰다. 조금 전까지 순정 만화 같던 바람의 장르가 순식간에 스릴러 영화로 바뀌었다.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 섬 최북단 전망대에 도착한 뒤 숨을 고르고 다시 길을 걸었다. 다산다리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자 펜션과 민박, 식당, 슈퍼마켓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바다에는 복합낚시공원이 개장했는데, 가우도에서 유일하게 낚시가 허락되는 곳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모노레일 승강장까지 잔도가 이어진다.

모노레일에 탑승해 청자타워에 올랐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집라인을 타고 바다 위를 날아 섬을 벗어날 생각이다. 장르가 다시 공포 영화로 바뀐다.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도 심박수가 잦아들지 않는다. 심호흡을 하고 낮게 점프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강한다. 속도가 조금씩 늦춰지는 기분에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물 빠진 갯벌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난다.



2

1가우도에서는 제트보트나 패들보드를 타고 강진만을 누빌 수 있다. 2재방문객이 많은 청자촌 오토캠핑장. 3마랑항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총 2억 원 규모의 시상금과 경품이 걸린 '2026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가 열린다. 4 동화 같은 정원을 품은 림스글램핑.



3 © 강진피싱마스터스



4

영문원주민 ©

A scenic view of a wooden boardwalk leading to a suspension bridge over a bay, with a couple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The boardwalk is made of dark wood and has a railing. The suspension bridge is made of metal and has a net-like structure. The bay is filled with water and has a sandy beach. The background shows a forested hillside and mountains in the distance.

Gangjin, A Second Home for Family Campers

There are several things campers look for when choosing a campsite: the first view they wake up to in the morning, accessibility, facilities, cleanliness, and distance from major attractions. Tucked along the western foothills of Gangjin Bay, Celadon Village Auto Camping Site is neither beside the sea nor surrounded by deep forest, yet reservations are fiercely competitive.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it is even known as a “second home” thanks to its high rate of returning visitors. The reason became clear the moment we arrived. One adult man was playing with six or seven children who had only recently met one another. The kids had quickly become friends, and the adults were taking turns watching over them at the playground. Instead of drunken shouting or loud music, the campsite is filled with children’s laughter and the sound of cool breezes.

The campground is divided into two zones. Campground 1 features caravans with different themes, easy camping sites fully equipped with camping essentials, and auto-camping sites with parking spaces and spacious wooden decks. Campground 2 is reserved exclusively for auto camping. Tents, cookware, and other equipment can be rented from the management office, making it easy even for beginners without personal gear. In addition to the main playground with slides, there are trampolines and sand play areas popular with children, while inflatable water play facilities operate during summer. Across from the campsite are the Goryeo Celadon Museum and the Korean Minhwa Museum. Within a 10-minute drive are Hajeo Village, known for mudflat experience programs, and Gaudo Island, home to various leisure activities.

Address 42-5, Cheongjachon-gil, Daegu-myeon, Gangjin-gun, Jeollanam-do (Celadon Village Auto Camping Site)



1

량은 2·4인승과 5인승으로 나뉘는데, 4인승은 2인승 차량에 팝업 텐트를 더한 형태다. 2·4인승은 전기차 충전비까지 무료다. 공간이 넓은 5인승에는 샤워 시설과 물 충전 탱크가 갖춰져 움직임이 조금 더 여유롭다. 모든 차량 이용 시 2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며, 운전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노을이 아름다운 목포구등대

목포역 부근에서 해남 시티투어 캠핑카를 타고 화원반도로 향했다. 별암포구에서 대한조선을 지나 양화마을에 들어서자 해풍에 누렇게 익어 가는 청보리가 나른하게 춤을 춘다. 경사진 구릉을 따라 하얀 완두콩꽃과 짙은 초록의 대파밭, 호밀밭이 층층이 이어진다. 바람 때문인지 나무들이 위보다 옆으로 더 풍성하게 자란 느낌이다. 마을을 빠져나와 화원반도 북쪽 끝에 이르자 해안 절벽 아래로 범선을 닮은 등대가 보인다. 해남 화원반도와 목포 달리도 사이를 지나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좁은 수로 입구에서 배를 안내하는 목포구(木浦口)등대다. 대한제국 시대인 1908년 이곳에 처음 등대를 세웠고, 2003년 12월 높이 36미터의 신형 등대로 교체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인 등대였다가 선박 통항량이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1964년에 유인 등대로 바뀌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2023년 다시

무인 등대로 전환됐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등대라니, 5초마다 깜빡이는 섬광이 어쩐지 비장하게 느껴진다. 등대가 보내는 불빛은 40킬로미터 밖까지 닿는다. 등대 안에는 해양 역사와 등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있다. 신형 등대 뒤편에는 100년도 넘는 옛 등대가 서 있다. 7.2미터 높이로 돛형 지붕 꼭대기에 풍향계가 있고, 등롱에 오르는 계단과 등롱 지붕 손잡이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목포구등대 인근 전망대에 서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목포 달리도와 외달도가, 멀리는 신안 압해대교와 다도해가 펼쳐진다. 해가 기울 즈음 수평선과 교량, 다도해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화원반도 최고의 일몰 풍경으로 꼽힌다. 등대 입구에서 이어지는 해안택 길은 매봉산 산비탈을 따라나 있어 걸으면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낭만바다캠핑, 오시아노 캠핑장

목포구등대에서 오시아노 캠핑장으로 가는 길, 차창을 내리자 때죽나무 향이 풍겨 온다. 오색찬란하게 봄을 알리던 꽃이 지고, 하얀 꽃과 푸른 잎사귀를 띄우며 계절은 또 다른 경계를 넘는다. 노을이 아름다운 오시아노 캠핑장은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뉜다. 1캠핑장에는 '우주선 캐러밴'이라 불리는 럭셔리 트

캠핑카 밖은 바다 해남

목포와 진도 사이, 해남읍에서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화원반도는 길을 따라 바다와 들판, 크고 작은 저수지와 산악 지대까지 다채로운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짐을 꾸리지 않고 텐트를 펴지 않아도 된다. 길을 따라 달리다 멈추는 곳이 집이 된다. 맑은 날이면 별을 쬐다가 별을 세며 잠들고, 흐린 날에는 흙냄새를 맡으며 빗소리를 음악 삼아 자연 속에 머문다. 캠핑카 여행의 꿈이 몽게구름처럼 피어나던 날, KTX 열차표가 가격을 50퍼센트 할인해 주는 '해남 캠핑카 시티투어' 상품을 발견했다. 캠핑장 이용료도 무료다. 한정된 공간에 침실과 주방, 탁자, 소파는 물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냉난방 시스템까지 짜맞춤 가구처럼 뽁뽁하게 채워 넣은 캠핑카는 바퀴 달린 집에 가깝다. 차량 내에는 침구 세트와 구이바다(캠핑용 버너), 취사(코펠, 설거지용품, 수저 등)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 먹거리만 준비하면 된다. 해남 캠핑카 시티투어 차

1 해남 화원반도와 목포 달리도 사이 협수로에서 바다를 지키는 목포구등대. 2 오시아노 캠핑장의 백미인 해변의 노을을 기록하는 소녀들.



2



1



2

레일러 네 동과 함께 방, 화장실, 거실이 분리된 글램핑 텐트 다섯 동이 있다. 2캠핑장과 3캠핑장은 신선한 풀 내음을 맡을 수 있도록 잔디밭에 조성했다.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경사지에 위치해 텐트안으로 아스라이 바다가 들어온다. 시티투어 캠핑카 전용 스테이션은 바다와 면한 5캠핑장에 있다. 사이트마다 튼튼한 천막아래 의자와 테이블, 불멍 화로가 구비되어 있다. 새벽 추위에 대비해 관리 사무소에서 전기장판을 빌렸다.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매점은 스낵과 음료, 캠핑용품은 물론 한강라면자판기까지 갖췄다. 7~8월 성수기에는 육류와 채소 등 해남 지역에서 난 식재료도 판매한다. 캠핑장이 품은 바다의 해안선은 U자 두 개가 포개진 형태다. 한쪽은 해양 레저 체험장으로, 다른 쪽은 갯벌 체험장으로 운영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지만 바다에 독을 설치해 물때에 상관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단, 7~8월 외에는 주말에만 운영)는 카약과 패들보

드 같은 레포츠도 가능하다.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갯벌 체험장에는 바다 고둥, 꼬막, 모시조개, 꼬마게 등이 풍부해 2~3시간 만에 4인 가족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을 채취할 수 있다. 자전거를 빌려 캠핑장 주변을 두어 바퀴 돌다 노을 전망대로 향했다. 반짝이는 윤슬이 노을보다 찬란하다.

하늘에서 되새기는 명량해전의 역사

해남 시티투어 캠핑카를 예약하면 명량해상케이블카, 포레스트수목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모노레일, 두륜산 케이블카중 한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캠핑카를 타고 해남의 지역을 방문할 때는 추가 요금이 붙는다.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가까운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러 우수영국민관광지로 향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거센 물살을 이용해 크게 승리한 명량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이색대첩비,

1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 해안선을 따라 달린다. 2 바다 바로 앞에 자리한 해남 시티투어 캠핑카 전용 스테이션. 3 해남 시티투어 캠핑카를 이용하면 캠핑 사이트와 일부 관광지 입장이 무료다.



3

울돌목 스카이워크, 강강술래전수관 등이 들어서 있다. 먼저 울돌목 스카이워크로 향했다. 바다 쪽으로 32미터 돌출된 이곳은 높이 25미터에 이르는 주탑 아래 총 110미터의 길이 이어지는데, 전체 모양이 판옥선의 돛을 닮았다. 강강술래를 하듯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를 거닐 수 있도록 한 길에는 '강강수월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울돌목 스카이워크 아래에는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상'이 있다. 풍전등화 같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갑옷이 아닌 동다리를 입고 손에는 검 대신 지도를 들고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러 이동했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로, 길이는 짧지만 울돌목의 거친 물살과 진도대교, 그리고 다도해의 탁 트인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일반 캐빈과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으로 나뉘는데, 울돌목의 역동적인 물살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다.

Haenam Outside Your Camper Van

No packing endless gear. No pitching tents. Wherever the road ends becomes home. On sunny days, travelers bask in the sunlight and fall asleep counting stars. On rainy days, they stay close to nature with the scent of wet earth and the sound of rain as background music. Just as dreams of camper van travel began to take shape, we discovered the Haenam Camper Van City Tour, which offers a 50 percent discount on KTX train fares. Campsite fees are also free. Inside the camper van, the compact space is fitted with a bed, kitchen, table, sofa, refrigerator, microwave, television, an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creating something closer to a small house on wheels. Bedding, a portable grill burner, cookware, utensils, and washing supplies are all included, so travelers only need to prepare food. The tour offers both 2-to-4-person and 5-person vehicles. The smaller model includes a pop-up tent, while the larger 5-person vehicle provides a shower and water tank for greater flexibility. Charging fees for the electric 2-to-4-person camper vans are also free. All vehicles require a standard driver's license and at least one year of driving experience.

Guests using the Haenam Camper Van City Tour can stay free of charge at the camper van station inside Oceano Camping Site. Located beside the coast, Oceano is known for its beautiful sunsets and activities such as kayaking and paddleboarding, while mudflat experiences are available in summer. Booking the camper van tour also includes free admission to one attraction among the following: Myeongnyang Marine Cable Car, Forest Arboretum, Ttangkkeut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Ttangkkeut Monorail, or Duryunsan Cable Car.

Address 376-1, Hwabong-ri, Hwawon-myeon, Haenam-gun, Jeollanam-do (Oceano Camping Site)





1

월출산에 안겨 달빛 캠핑 영암

월출산의 한자를 풀이하면 '달이 뜨는 산'이다. 서해에 접해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산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정화수를 떠 놓고 물에 비친 달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영험한 기운이 깃든 곳이다.

캠핑을 하다 보면 세간은 단출하고 생각은 단순해지며 불편함은 낭만이 된다는데, 유유자적한 음유시인을 꿈꾸던 것과 달리 초보 캠퍼의 하루는 분주하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비를 챙기고 마트에 들러 먹거리를 구입한 뒤 예약해 둔 캠핑장으로 향했다.

월출산국립공원 산자락에 터를 잡은 영암국민여가캠핑장은 앞쪽으로 깊은 계곡을 끼고, 뒤쪽으로는 높은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캠핑장을 조성해 사이트마다 단차가 생겨 독립적인 느낌을 준다.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캠핑 의자에 눕듯이 앉아 주변을 살핀다. 풀벌레 소리 너머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캠핑장의 가장 높은 곳, 전망대 역할

을 하는 정자에 올랐다. 험준한 산과 광활한 들판 너머에 영암읍이 꽃처럼 박혀 있다. 이곳이라면 별을 덮고 바람을 베 채 잡들 수 있을 것만 같다.

가벼운 트레킹, 기찬밧길

영암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한 회문리 일대는 다양한 야생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캠핑장 주변으로 월출산 북서면 돌레를 넘나드는 기찬밧길이 연결된다.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리 두암마을까지 이어지는 약 40킬로미터의 트레킹 길로, 월출산 기슭을 따라 지상의 기가 모여 하늘로 솟구치는 모양으로 조성했다. 말 그대로 기(氣)찬밧(山)길이다. 천황사 주차장에서 기찬랜드까지, 기찬밧길에서 경치가 가장 좋다는 6.7킬로미터 구간을 걸었다.

바위가 많은 월출산 자락에 자리했지만 돌레길이라 오르내림이 심하지 않다. 편백나무, 삼나무, 밤나무 등이 촘촘한 숲길이 이어지는데, 숲을 벗어난 구간에서는 월출산의 화려한 암봉이 위용을 드러낸다. 오래 전 암봉에서 떨어져 나왔을 커다란 바위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구간은 산성대 탐방로 입구에서 영암국민여가캠핑장까지 이어지는 황톳길이다. 660미터에 이르는 이 길을 맨발로 걸으면 기찬밧길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가 채워지는 듯하다. 영암국민여가캠핑장에서 금강송 숲길을 지나면 기찬랜드가 나온다. 여름이면 천연 풀장이 만들어져 피서객이 몰려드는 곳이다. 풀장에 채워진 물은 천황봉에서 발원해 맥반석 계곡을 따라 사방댐에 모인 천연수로, 각종 미네랄을 함유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졌다. 기찬랜드 주변에는 가야금산조기념관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복합 관광 단지를 이뤄 볼거리가 풍부하다.

영암 최고의 일출을 볼 수 있는 덕진차밭을 지나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옥이 여러 채 모여 있는 마을을 발견했다. 조선 전기 예문관에서 글을 다루던 문신 연촌 최덕지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사위 신후경과 함께 지었다는 정자 영보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영보학원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항일 구국 정신을 심어 주고, 1932년 영보농민항일운동의 중심이 된 곳도 영보정이다. 해방 후에는

영보국민학교 교실로 사용했으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 영보정은 건축적 아름다움과 마을 공동체의 공간, 나라 사랑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자에 올라 바라보니 거대한 느티나무가 푸른 들판과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롭다. 현판 글씨는 한석봉이 쓴 것이라 전해진다. 마을을 거닐며 지역 향약과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동계사,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을 봉안한 영당, 녹동서원의 목판과 고문서가 여러 점 보관된 전각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터스포츠의 메카, 국제자동차경주장

유망주로 주목받았으나 전설이 되지 못한 베테랑 드라이버가 최하위 팀에 합류해 천재 드라이버와 팀을 이뤄 일생일대 레이스를 펼치는 영화 <F1 더 무비>

1 월출산 경사면에 자리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영암국민여가캠핑장. 2 월출산 북쪽 돌레에 조성한 기찬밧길 황톳길 구간은 맨발로 걸으면 더 좋다.



2



1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체험카트. 26월 6일과 7일 F1 트랙에서 2026 KIC 챌린지 레이스가 펼쳐진다. 3 영암 최고의 일출을 볼 수 있는 덕진차밭과 월출산. 4 월출산에 안겨 별을 덮고 잠들 수 있는 영암국민여가캠핑장.

의 스토리는 모터스포츠 문화한에게도 감동적이었다. 2시간 가까이 화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자동차와 속도감이 주는 짜릿함은 영화관을 나선 뒤에도 쉬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영암 여행 버킷 리스트에 국제자동차경주장(Korea International Circuit, KIC)을 넣은 이유다. KIC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살피니 모터사이클 트랙 데이이 예정돼 있었다. 전문 레이서부터 취미로 트랙을 찾는 라이더까지 각자의 속도로 트랙을 달리는 모터사이클 주행 이벤트다. 총길이 5.6킬로미터의 KIC는 국내 유일의 F1 서킷으로, 독일의 서킷 디자이너 헤르만 틸케가 설계했다. 긴 직선 구간과 까다로운 코너가 교차하며,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배경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운 좋게 주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피트 월(pit wall)에 들어갔다. 피트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감각이 귀로 쏠린다. 엔진이 깨어나는 순간, 평소에는 바람과 햇빛이 지배하는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뀐 느낌이다. 고회전으로 치솟는 엔진음, 급격히 감속할 때의 금속성 마찰음, 다시 직선 구간에서 폭발하듯 뻗어 나가는 가속의 리듬. 그 소리들이 라이더의 언어처럼 들린다. 관람석에서는 직선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한순간 몸을 낮추며 코너를 파고드는 장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영암 서킷은 일반인도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개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하나가 체험카트다. 레이싱의 세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안전 교육을 받고 카트 조작법을 배운 뒤 헬멧을 쓰고 카트에 올라탔다. 갑자기 시선이 낮아지면서 몸이 노면과 가까워진다. 속도에 대한 감각도 달라진다. 안전상의 이유로 최고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체감은 훨씬 빠르다. 모터스포츠를 경험하고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모터스포츠 관람법을 물었다. 6월 6일부터 이틀간 F1 트랙에서 2026 KIC 챌린지 레이스가 열리는데, <SLTV Sports> 유튜브 채널(youtube.com/@SLTVSPORTS) 생중계를 보면 물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제작 지원 강원진진군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3



4



Moonlight Camping Beneath Wolchulsan, Yeongam

Set along the slopes of Wolchulsan National Park, Yeongam National Leisure Campground sits between a deep valley in front and dense forest rising behind it like a folding screen. Built along the mountain's natural incline, the campsite has varying elevations that give each site a more private atmosphere. The surrounding Hoemun-ri area is home to diverse wildlife and native plants, and nearby trails connect to the Gichanmoet-gil, which circles the northwestern side of Wolchulsan. Stretching 33 kilometers from Cheonhwangsa Parking Lot to Duam Village in Miam-ri, the trail was designed to symbolize earthly energy rising toward the sky along the foothills of the mountain. Among the various sections, the 6.7-kilometer stretch from Cheonhwangsa Parking Lot to Gichan Land is considered the most scenic. Although the trail runs through the rocky landscape of Wolchulsan, it follows gentle contours with relatively mild elevation changes. Forest paths lined with cypress, cedar, and chestnut trees continue for long stretches, while open sections reveal the dramatic rocky peaks of Wolchulsan. Scattered throughout the trail are massive boulders that appear to have broken away from the mountain long ago. One of the most popular sections is the 660-meter red clay barefoot path connecting the entrance of Sanseongdae Trail to Yeongam National Leisure Campground. Walking barefoot along the soft earth truly feels as though energy is gradually filling the body. Beyond the campground, a trail through a forest of Korean red pines leads to Gichan Land. During summer, a natural pool forms here, drawing visitors seeking relief from the heat. The water originates from Cheonhwangbong Peak and flows through mineral-rich rocky valleys before gathering below, and is said to contain beneficial minerals.

Address 1486-90, Yeongam-ro, Yeongam-eup, Yeongam-gun, Jeollanam-do (Yeongam National Leisure Campground)



강해영 프로젝트가 보증하는 강진·해남·영암 캠핑장

숲속 야영장부터 바닷가 글램핑까지, 남도 캠핑의
멋을 만끽할 캠핑장을 추천한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하는 땅끝오토캠핑장

땅끝송호해수욕장 남쪽에 위치한 송호해변의 일몰과 땅끝전망대의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캠핑장이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공공 캠핑장으로 요금이 합리적이다. 바다와 해송림, 해변이 어우러져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밤에는 별과 달을 감상하기 좋다. 일반 야영장과 캐러밴으로 나뉘며 잔디와 데크 사이트가 있다. 땅끝전망대, 땅끝탑 등 해남 대표 관광지와 가깝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25-5 문의 061-534-0830

캠핑 감성을 더한 체험과 휴식 땅끝황토나라테마촌캠핑장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소나무 그늘이 매력적인 숲속캠핑존과 넓은 잔디밭이 있는 오토캠핑존으로 나뉜다. 오토캠핑존에는 야영 사이트 외에 캐러밴 18대가 있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는 캠핑장 외에도 생태 수변 공원과 음악 분수대, 고향뜰 산책로 같은 휴식 공간이 있으며 조개잡이나 바지선 낚시 같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730 문의 061-533-9822



동화 감성의 정원 캠핑 림스글램핑

동화 같은 감성과 글램핑의 편리함을 갖춘 림스글램핑은 전남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림스가든 안에 있다. 수영장 and 핀란드식 사우나, 트램펄린 등의 시설을 갖췄고, 캠핑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했다. 일부 글램핑 동과 캐러밴을 반려동물 동반 숙소로 운영하며, 강아지 전용 수영장도 있다. 불명이나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별을 세며 잠들기 좋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 1038-30 문의 0507-1462-2391



복층 구조에 개별 수영장까지 갖춘 온길글램핑

칠량면 해안가에 터를 잡은 온길글램핑은 '따뜻한 길'와 '봤던 길'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따뜻한 추억의 공간을 지향한다. 글램핑 동과 이글루 동으로 나뉘며, 글램핑 동은 복층 구조에 개별 수영장이 딸려 있다. 모든 객실은 독립형 구조로, 내부에서 칠량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한 휴식과 감성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커플이나 가족 여행객이 좋아할 만한 곳이다.

주소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 115 문의 070-4468-1611



자연 속 소박한 캠핑의 매력 동글감나무캠핑장

검은색 외벽의 현대적 글램핑 동과 노란 파라솔의 조화가 인상적인 캠핑장. 사이트마다 개별 화장실과 샤워 공간, 개수대가 있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도 갖췄다. 놀이터와 트램펄린, 수영장도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캠핑들에게 인기가 높다. 화목으로 데우는 개별 자쿠지를 설치해 겨울에도 낭만 캠핑을 즐기기도 좋다. 단, 반려동물은 동반할 수 없다.

주소 전남 영암군 금정면 황성산길 21 문의 0507-1461-8785



월출산 탐방로와 바로 연결되는 천황야영장

웅장한 바위 봉우리와 짙푸른 숲이 어우러진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지구에 자리한 국립공원형 캠핑장. 도심형 캠핑장과 달리 아늑하고 조용해 밀도 높은 휴식을 취하기 좋다. 일반 야영지와 하우스, 캐러밴이 조성돼 있고, 캐러밴과 일반 야영지를 결합한 복합 영지도 있다. 야영장에서 월출산 탐방로로 접근하기 쉬운 것도 장점.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73 문의 061-473-5210

동해, 내 마음은 파랑

오래된 항구 마을 묵호부터 푸른 바다가 장쾌하게 펼쳐지는 한섬,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은 전천, 야간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추암까지.
강원도 동해에서 서로 다른 표정의 풍경을 포착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묵호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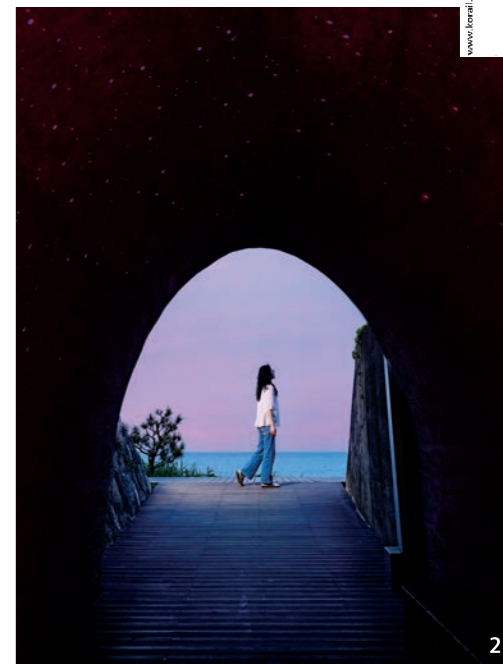
| 1 |

낭만이 흐르는 해안 산책로
한섬감성바닷길

동해에는 유독 해안선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많다. 그중에서도 천곡동 해안 지대의 한섬감성바닷길은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다. 과거 군 해안 경계 철책으로 가로막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2022년부터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감추사 육교에서 한섬해변, 고불개, 가세마을로 이어지는 약 2.2킬로미터의 해변 산책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경이 확확 달라진다. 장쾌한 동해 바다와 해안 절벽, 울창한 송림, 기암괴석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한섬해변에서 고불개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석회암 암석 기둥인 라피에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몽돌해변도 만난다. 유독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은 한섬해변이다. 나무 데크 옆으로 알록달록한 색을 입은 테트라포드가 즐지어 있고, 여기에 영동선 KTX-이음 열차가 지나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SNS를 통해 입소문 난 '빛 터널'에는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가 지면 분홍빛 노을이 번지고, 길이 100미터의 터널형 조형물 '리드미컬 게이트'에 조명이 켜지며 해변 분위기가 한층 몽환적으로 변한다.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반짝이는 조명 사이를 걷다 보면 잠시 현실 감각을 잃게 된다. 게이트 끝에 다다르자 비로소 한섬해변의 진짜 밤 풍경이 펼쳐진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엄마와 딸, 서로 사진을 찍어 주다 웃음을 터뜨리는 두 친구 등 밤바다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천진하고 부드러워진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안길 9 문의 033-530-2447

1 한섬해변에서 고불개로 이어지는 길목에서는 석회암 기둥인 라피에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몽돌해변을 만난다. 2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포토존 '빛 터널'에서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감상 사진을 찍을 수 있다. 3 해가 지면 리드미컬 게이트에 켜진 조명이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반짝인다.



2



3

| 2 |

전천 따라 걷는 느긋한 오후
무별이네 피크닉존 & 전천스테이션

북평 오일장을 비롯해 송정, 북삼, 삼학 등 동해 남부권을 둘러볼 계획이라면 반나절 산책 코스로 전천 일대를 추천한다. 하천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주민들이 밤낮으로 즐겨 찾는다. 최근에는 무별이네 피크닉존과 전천스테이션이 들어서며 작은 테마 공원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무별이네 피크닉존에서는 전천 옆에 자리한 높이 6미터, 폭 3.3미터 규모의 대형 캐릭터 '무별이' 조형물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주변에는 네 친구 캐릭터 조형물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무릉계곡과 동해 바다, 추암 촛대바위, 망상해변 등 지역의 자연과 풍경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동해를 여행하다 보면 바닷가 책방마을이나 한섬해변, 무릉별유천지 등에서 한 번쯤 마주한다. 액자형 포토존에서는 무심한 표정의 무별이 옆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남긴다. 포토존 옆으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를 따라가면 피아노 계단과 그 위에 빨간 열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 동해의 해안선을 달리던 바다열차를 본뜬 전천스테이션이다. 약 18미터 길이의 기차 모형 두 동을 연결한 테마형 카페로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과자와 빵, 냉동 피자는 물론 즉석 라면까지 갖춰져 있어 가볍게 요가하기 좋다. 자리에 앉아 통창 너머로 잔잔히 흐르는 전천과 그 위를 유영하는 청둥오리, 돌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가벼운 활동을 원한다면 전천스테이션 아래쪽에 자리한 9홀 규모의 미니 골프장에 가 보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산책길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281 문의 033-530-2443



1 동해시 캐릭터 무별이와 네 친구 조형물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무별이네 피크닉존. 2 전천스테이션 아래쪽에 자리한 9홀 규모의 미니 골프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가능하다. 3 과거 동해의 해안선을 달리던 바다열차를 모티브로 조성한 전천스테이션. 4 전천스테이션에서 즉석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달콤한 휴식을 취한다.



1

1 두두달의 김지연 대표는 재료 본연의 형태와 질감을 살리면서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더한 작업을 선보인다. 2, 3 동해 바다에서 주운 바다 유리가 시들지 않는 화분으로, 조개껍데기는 아기자기한 오브제로 다시 태어났다. 4 목호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한 바닷가 책방마을은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 한 권 펼쳐 보기 좋은 공간이다.



2



4

주소 강원도 동해시 지리2길 20(바닷가 책방마을), 중앙시장길 12(두두달) 문의 033-530-2633(바닷가 책방마을), 0507-1346-8606(두두달)

| 3 |

발한동 골목에 분 새바람 바닷가 책방마을 & 두두달

1970년대 목호항과 목호역을 중심으로 출판사와 인쇄소, 책방 등이 성행한 발한동 일대는 1980년대 이후 어획량 감소와 석탄 산업 쇠퇴로 빠르게 침체되었다. 활기를 잃은 동네가 새 숨을 얻은 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기로 바닷가 책방마을을 조성하면서였다. 바닷가 책방마을은 과거 목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과 무협지를 읽던 시절의 정취를 살린 만화책 특화형 공간이다. 몸을 푹 감싸는 빈백과 아늑한 벙커형 공간이 마련된 1층 만화책방에서는 특별한 큐레이션 코너가 눈길을 끈다. 따뜻한 위료가 필요하다면 <무빙> <닥터 슬럼프>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면 <헌터×헌터> <나루토>를 권한다. 2층에서는 여행의 순간을 네 컷 만화로 남기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을 엮어서 필사할 수 있다. 여행객의 발길을 붙드는 또 다른 스폿, 뉴월 드 상차도 흥미롭다. 파란 천막 아래 소품 숍과 공방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업사이클링 소품 숍 두두달이다. 동해 바다에서 주운 조개껍데기와 바다 유리를 영롱한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김지연 대표는 재료 본연의 형태와 질감을 살리면서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더한다. 시들지 않는 바다 유리 화분, 페타일로 만든 마그넷, 유목에 조개껍데기와 바다 유리를 엮은 모빌 등은 한때 쓰레기 취급을 받던 재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조개껍데기와 바다 유리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김 대표의 일상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대전해수욕장에서 파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서퍼들, 바닷속으로 잠수할 듯한 물고기 모양의 어달항 등대 등 작은 조개껍데기 안 풍경을 들여다보니 동해의 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28

3

4

자연이 빛은 예술 작품
추암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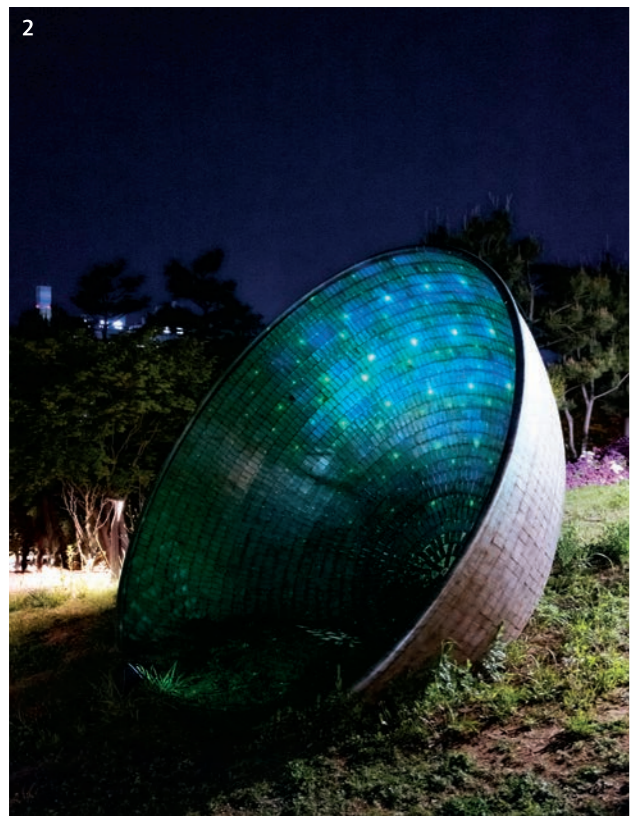
동해를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인 추암해변은 기암괴석과 해안 절벽, 고운 백사장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하다. 규모는 작지만 절경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길고 뾰족하게 솟은 바위에 아침 해가 걸린 모습이 촛불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추암 촛대바위는 사계절 내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거센 파도에 주변 암석이 깎여 나가고 단단한 부분만 기둥처럼 남았는데, 기묘한 그 모습이 경이롭다. 주변에는 거인바위, 코끼리바위, 양머리바위 등 생김새에 따라 이름 붙은 돌기둥들이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서 있다. 거대한 성벽처럼 늘어진 기암괴석 군락의 압도적인 기세에 절로 발길이 멈춘다. 반대편 언덕에 오르면 2019년 6월에 개통한 길이 72미터의 추암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다 위를 건널 때의 아찔함과 함께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만큼 장관이다. 능파대, 추암해변, 멀리 삼척의 이사부사자공원까지 한눈에 담겨 두 도시의 해안선을 동시에 굽어보는 느낌이 특별하다. 출렁다리 끝에 다다르면 동선은 자연스럽게 추암조각공원 산책로로 이어진다. 나무 데크를 따라가며 최옥영의 '희망', 정대현의 'The Sailer', 임승오의 '시간의 그릇' 등 30여 점의 개성 넘치는 조각 작품을 차례로 만난다. 해가 지면 추암해변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뀐다. 색색의 조명이 추암조각공원을 물들이고, 촛대바위에 망상해변, 추암해변 등 동해 관광지를 영상으로 비춰 밤바다를 몽환적인 분위기로 만든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3(추암조각공원 주차장) 문의 033-530-2801



1

1해가 지면 촛대바위에 망상해변, 추암해변 등 동해 관광지를 영상으로 비춰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 준다. 2 추암조각공원에 전시된 30여 점의 개성 넘치는 조각 작품에도 색색의 조명이 더해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3 추암 출렁다리 위에서 서면 능파대와 추암해변, 삼척의 이사부사자공원까지 한눈에 담긴다.



2



3



주소 강원도 동해시 감추길 38(한섬), 발한로 223-1(도야하우스) 문의 0507-1479-1434(한섬), 0507-1339-3431(도야하우스)

5

한 입의 여유, 한 잔의 휴식
한섬 & 도야하우스

한섬해변 인근에 자리한 한섬은 동해의 제철 해산물로 수준 높은 한 상 차림을 선보인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에 동해 토박이인 이병욱·박가원 대표의 손길이 닿는다. 점심에는 해산물을 듬뿍 넣은 솔밥 정식을, 저녁에는 동해 보리새우무침과 묵호 문어카르파치오, 비천골 감자노키 같은 단품 요리를 낸다. 대표 메뉴는 '동해한상'. 자연산 문어와 홍새우, 전복을 올린 솔밥에 단품 요리로도 손색없는 성계미역국과 명태회무침, 한우소고기말이 등 10여 가지 찬을 곁들인 한상이 차려진다. 연근과 채 썬 당근, 허브, 식용 꽃 등의 고명은 상차림을 한층 화사하게 만들고, 높낮이가 다른 그릇에 음식을 균형감 있게 담아낸 차림새는 정성스럽고 우아하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다 보면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한섬에서 근사한 한 끼를 즐겼다면, 티룸 도야하우스에서는 차 한 잔으로 여행의 속도를 늦춰 보자. 동해의 일출을 담은 브렉퍼스트 홍차 '윤슬과 일렁임', 잠들기 전 포근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멜로우 아우어', 바다 소풍의 기억을 되살린 '비치 넵 앤 포이트리' 등 김의규 대표가 일상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일곱 가지 블렌딩 티를 판매한다. "햇살이 부드럽게 해변 위로 내려앉았다. 멀리서 풍겨 오는 향긋한 열대 과일의 향기가 마치 낙원으로 온 듯한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티네임 카드에서 비치 넵 앤 포이트리에 얽힌 문장을 읽으며 차를 마시다 보면 새콤달콤한 열대 과일 향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차에 곁들이기 좋은 디저트로는 치즈 테린이 인기 있다. 특히 윤슬과 일렁임과의 조합이 좋는데, 홍차의 산뜻한 향이 목직한 테린을 부드럽게 감싸며 풍미를 더한다.



1 한섬의 대표 메뉴 '동해한상'. 자연산 문어와 홍새우, 전복을 올린 솔밥에 성계미역국과 명태회무침 등 10여 가지 찬을 곁들여 한상 가득 차려낸다. 2 도야하우스 1층 티룸은 천장 한쪽의 통창에 담긴 물이 햇빛을 받아 공간 전체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거친 돌과 유목, 초록빛 식물이 어우러져 작은 수중 정원을 연상시킨다. 3 산뜻한 홍차 '윤슬과 일렁임'은 목직한 치즈 테린과, 향긋한 '비치 넵 앤 포이트리'는 레몬을 넣어 새콤달콤한 배 소르베와 잘 어울린다. 4 도야하우스 2층 쇼룸에서는 연서와 도자기, 오브제 등 작가의 철학이 깃든 창작물을 김의규 대표가 큐레이션해 소개한다.





Donghae, My Heart in Blue

1 Hanseom Gamseong Sea Trail

Stretching about 2.2 kilometers from Gamchusa Bridge to Hanseom Beach, Gobulga, and Gase Village, the Hanseom Gamseong Sea Trail changes scenery with nearly every step. The vast sea, coastal cliffs, pine forests, and dramatic rock formations unfold one after another. Among them, Hanseom Beach leaves the strongest impression. Brightly painted tetrapods line the wooden deck, while KTX-Eum trains pass along the nearby Yeongdong Line, creating an unusual coastal atmosphere. As evening falls, pink sunset colors spread across the shore, and lights begin to glow along the 100-meter tunnel installation known as the Rhythmical Gate. The beach slowly takes on a dreamlike atmosphere. Walking beneath lights that pulse rhythmically with music, it becomes easy to lose track of reality.

Address 9, Hanseomhaean-gil, Donghae-si, Gangwon-do **Contact** 033-530-2447

2 Mubyeori's Picnic Zone & Jeoncheon Station

At Mubyeori's Picnic Zone, the first thing to catch the eye is the giant character sculpture of Mubyeori standing beside Jeoncheon Stream. Measuring six meters tall and 3.3 meters wide, the figure is impossible to miss, while smaller sculptures of Mubyeori's friends gather nearby. Inside the frame-shaped photo zone, visitors can pose beside the character's signature expressionless face. Following the cheerful music drifting from beside the photo zone leads to piano stairs and a bright red train. This is Jeoncheon Station, a themed café modeled after the Sea Train that once traveled along Donghae's coastline. Opened this February, the café connects two train-shaped structures stretching about 18 meters in total length. Snacks, pastries, frozen pizza, and even instant ramen are available, making it an ideal stop during a walk. Beneath Jeoncheon Station is a free nine-hole mini golf course that adds a small but enjoyable diversion to the riverside stroll.

Address 281, Bukpyeong-dong, Donghae-si, Gangwon-do **Contact** 033-530-2443



From the old harbor town of Mukho to the sweeping blue shoreline of Hanseom, the gentle walking paths of Jeoncheon, and Chuam glowing beneath night lights, Donghae in Gangwon-do reveals many different faces of the sea.

3 Seaside Bookstore Village & Dodo Dal

The Seaside Bookstore Village is a comic book-themed cultural space inspired by memories of people reading comics and martial arts novels while waiting for trains at Mukho Station in the past. Inside the first-floor comic book lounge, visitors settle into oversized beanbags and cozy bunker-style reading spaces. On the second floor, visitors can create four-panel comic-style photo strips or copy favorite lines onto postcards as keepsakes from the trip. Another place drawing visitors into Balhan-dong is Dodo Dal, an upcycling design shop. Using seashells and sea glass collected from the Donghae coast, owner Kim Ji-eon transforms discarded materials into delicate objects filled with new meaning. Sea glass planters that never wilt, magnets made from discarded tiles, and mobiles crafted from driftwood, shells, and sea glass are so beautiful that it is hard to believe they were once considered tr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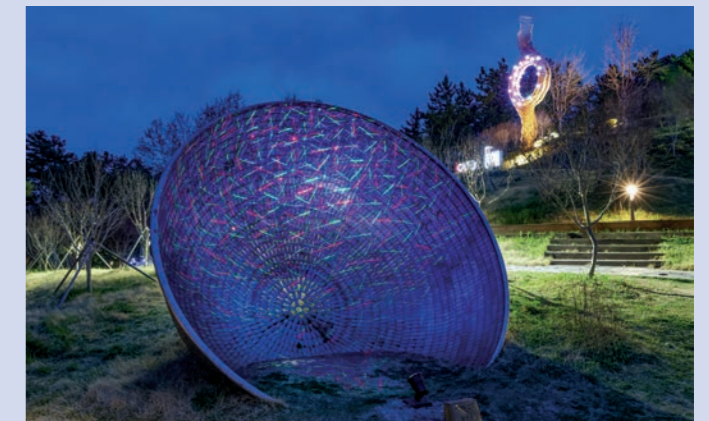
Address 20, Jiri2-gil, Donghae-si, Gangwon-do (Seaside Bookstore Village), 12, Jungangsijang-gil (Dodo Dal) **Contact** 033-530-2633 (Seaside Bookstore Village), 0507-1346-8606 (Dodo Dal)



4 Chuam Beach

Chuam Chotdaebawi Rock is one of Donghae's most iconic natural landmarks. Over countless years, crashing waves eroded the surrounding rocks, leaving only the hardest sections standing like towering pillars. On the hill across from the shore stands the Chuam Suspension Bridge, opened in June 2019. At the far end of the bridge, the path naturally continues into Chuam Sculpture Park. Along the wooden deck trail stand more than thirty sculptures, including Choi Ok-yeung's *Hope* and Lim Seung-o's *Bowl of Time*. After sunset, colored lights illuminate the sculpture park, while a large-scale media façade show lights up the Chotdaebawi area, adding a dreamlike atmosphere to the night sea.

Address 474-3, Chuam-dong, Donghae-si, Gangwon-do **Contact** 033-530-2801



5 Hanseom & Doyahaus

Near Hanseom Beach, Hanseom presents elegant table settings centered on seasonal seafood from Donghae. Its signature menu, Donghae Spread, features hot stone pot rice topped with wild octopus, red shrimp, and abalone, accompanied by more than ten side dishes including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sliced raw pollack salad, and rolled Korean beef. After a satisfying meal, visitors can slow the pace of the journey with tea at Doyahaus, a nearby tea room. Owner Kim Eui-gyu has created seven blended teas inspired by scenes from everyday life, including *Shimmer and Ripples*, a breakfast black tea inspired by Donghae's sunrise, and *Beach Nap* and *Poetry*, which recalls memories of seaside picnics.

Address 38, Gamchu 1-gil, Donghae-si, Gangwon-do (Hanseom), 223-1, Balhan-ro (Doyahaus) **Contact** 0507-1479-1434 (Hanseom), 0507-1339-3431 (Doyahaus)





초여름을 물들이는 보랏빛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석회석을 채광하던 광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무릉별유천지에서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라벤더 정원을 품은 강원도 동해의 무릉별유천지에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보라색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캔들과 디퓨저, 스카프 등을 만드는 라벤더 팝업 스토어를 비롯해 라벤더 생화와 드라이플라워로 부케와 향주머니를 제작하는 라벤더 클래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퍼플 Color 스튜디오까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라벤더 티 같은 특화 메뉴는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관과 라벤더 펄, 푸드 트럭 먹거리관도 마련해 방문객의 출출함을 달랜다. 지역 버스커들이 공연하는 어쿠스틱 라벤더 버스킹, 풍선과 마임을 결합한 퍼포먼스형 라벤더 벌룬 쇼도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스타런(RUN) 챌린지도 눈길을 끈다. 쇄석장에서 출발해 라벤더 정원과 무릉별들, 금곡호, 청옥호를 지나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약 2.8킬로미터 코스로, 회차별 20명 사전 모집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



라 향긋한 라벤더 정원을 함께 달린다. 동해를 느긋하게 둘러보고 싶다면 '라벤더 스타มป์ 투어'를 추천한다. 무릉별유천지, 망상해변, 추암해변, 무릉계곡, 천곡항금박쥐동굴, 묵호등대 등 여섯 곳을 방문하고 완주를 인증하면 동해 캐릭터 인형, 캐릭터 열쇠고리, 캐릭터 엽서 꾸미기 세트 중 하나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무릉별유천지는 산책과 휴식뿐 아니라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도 많다. 국내 최초의 4인승 스카이 글라이더와 최대 시속 40킬로미터의 알파인코스터, 총길이 1.5킬로미터의 오프로드 루지와 소나무 숲에 설치된 300미터 길이의 롤러코스터형 집라인까지, 액티비티 마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췄다.

해가 지면 무릉별유천지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방문객을 맞는다. 올해는 야간 방문객들을 위해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라벤더 정원 주변에서 펼쳐지는 레이저 쇼를 감상하고, 부채에 야광 형광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야간 특화 DIY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무릉별유천지의 밤이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다.



제작 지원 동해시청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기간 6월 13일~21일
장소 강원도 동해 무릉별유천지 일원
문의 033-532-9550(동해문화관광재단)



입안 가득 퍼지는 라벤더 향, 거북당

거북당은 라벤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내는 카페다. 대표 메뉴는 거북당의 라벤더 아이스크림. 메뉴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음회를 거쳐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메뉴로, 입안에서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산뜻함을 남긴다. 라벤더와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즐기고 싶다면 라벤더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를 부어 마시는 라벤더 아포카토와 커피 위에 라벤더 크림을 듬뿍 올린 라벤더 크림 라테를 추천한다. 겉들이 메뉴인 거북빵도 빼놓을 수 없다. 거북이 모양 빵에 팔이나 슈크림, 망상 사과 잼을 넣어 만든 거북빵은 찹쌀떡처럼 쫄쫄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독특한 메뉴만큼이나 거북당 역사도 흥미롭다. 쌍용시멘트 공장 인근에 자리한 거북당은 1960년대까지 삼화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드나들던 잡화점이었다. 상호는 잡화점을 운영하던 만물상의 등이 늘 곁에 있어 '거북이'로 불린 것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동해시와 삼화동 주민이 함께 만든 삼색삼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동네 가게의 추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15
문의 0507-1417-8032

부탄에서 붓다의 미소를 훔치다

첫 부탄 왕국 여행은 순례였다. 깊은 마을의 중심인 사원을 따라 이어지고, 여행자는 지도 모르게 합장 인사를 하며 조금씩 순례자가 되어 간다. 그렇다고 심오한 표정을 지을 일은 아니다. 그저 마을을 내려놓고 히말라야 기슭의 고요를 응시하기만 하면 된다.





1



2

1 키추라캉의 정원에 꽃이 화사하게 피었다. 키추라캉은 7세기 티베트 황제 송첸 감포가 세운 108개의 사원 중 하나로, 부탄 불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 키추라캉을 찾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을 염원하며 마니차를 돌리고 있다.

수줍은 땅, 묘한 설렘

히말라야 기슭에 숨은 듯 박힌 부탄의 관문, 비행기 이착륙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파로 공항을 나서면 젊은 여신의 형상을 한 불상이 여행자를 맞는다. 관능과 화사함을 감추지 않은 모습. 가이드의 안내로 찾아간 키추라캉(Kyichu Lhakhang)의 앵두꽃과 복사꽃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새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흰색 건물 안은 다양한 색감의 부처 상, 마니차(Manicha), 램프로 가득하다. 어디서나 강렬한 색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래서일까, 마을 사람들은 고요해 보이는데 기운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키추라캉은 7세기 티베트 황제 송첸 감포가 세운 108개 사원 중 하나로 부탄 불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장소에 나들이 온 주민들은 마당 벤치에 앉아 무심히 햇볕을 쬐거나 마니차를 돌리고, 불상에 절을 하거나 버터 램프에 불을 밝히며 저마다 소망을 빈다. 마니차는 회전식 범구로, 원통에 경전이나 주문(진언)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다. 부탄 사람들은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 주문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고 여긴다.

공항에서 본 성벽 같은 건물인 파로 종(Paro Dzong)으로 향하는 길, 국립박물관에 들렀다. 국립박물관은 1649년 파로 요새를 바라보는 곳에 망루로 세웠다. 사방을 살필 수 있도록 원형의 탑 형태로 짓고, 내부 깊숙이 빛이 들도록 창을 많이 냈다. 5층 높이의 내부에는 3000점 이상의 유물이 5층 전체에 배곡하다. 대다수가 불교 관련 유물이며 생활 도구도 제법 눈에 띈다. 그중 농기구와 대나무 바구니는 한국에서 보던 것과 매우 흡사해 아시아 문화권의 동질성이 확인된다. 박물관을 나와 파로 종으로 향했다. 종(Dzong)은 부탄 각 지역에 있는 요새이자 사원으로 부탄 특유의 건축양식을 보여 준다. 5층 높이의 목조건물이 바깥쪽을 에워싸고, 안에는 큰 건물이 자리한다.

광장에 들어서자 짙은 적색 장삼을 걸친 승려들이 크게 원을 그리며 춤추고 있다. 부탄 최대 축제인 파로 체추(Tshechu)에 참가하기 위해 한창 연습하는 중이다. 체추는 8세기 부탄에 불교를 전파한 구루 린포체(Rinpoche, 파드마삼바바)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종교 축제다. 부탄 전역에서 체추가 열리는데, 수도 팀푸(Thimphu)와 공항이 있는 파로의 체추가 가장 유명하다. 파로 체추는 매년 봄,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5일간 열린다. 부탄 사람들은 축제에서 승려들의 춤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씻고 공덕을 쌓는다고 믿어 체추를 신성시한다.

겔레푸와 히말라야 산골

부탄에서의 둘째 날, 아침 일찍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겔레푸(Gelephu)로 향했다. 비행시간은 30분. 부탄의 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의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 이하 GMC)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GMC는 부탄 남부 겔레푸 지역에 서늘 면적의 약 1.6배 규모로 조성하는 특별 행정구역을 말한다. 2023년 12월 부탄 국왕이 직접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GMC는 '마음 챙김'과 '인간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다.

GMC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은 108 장축 초르텐(Jangchub Chorten), 즉 깨달음의 탑이다. 부탄 국왕은 7세기 송첸 감포가 108개의 사원을 하루에 건립했다는 전설을 토대로 11킬로미터 구간의 트레일에 108개의 초르텐을 하루에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행은 국왕과 함께 해당 트레일을 두 시간 넘게 걸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했다. "GMC는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 구역이면서, 현대인이 힐링하고 휴식하며 영성을 돌보는 마인드풀니스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탄의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영성을 나누고 불도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기에 현재 부탄

의 자본으로 공항을 짓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부탄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마라톤을 하거나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는 스노맨 트레킹에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루 린포체가 축복을 내린 마을, 납지와 코르푸

부탄 국왕과의 깜짝 만남 다음 날,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산골을 달리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부탄에서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 마을을 벗어나면 이내 첩첩산중을 끼고 도는 산자락이 나타나고, 비포장 외길에 많아 자동차들이 쿵쿵거리며 달린다. 때론 흩더미가 쓸려 내려와 길을 막는 바람에 하염없이 발이 묶이기도 했다. 산길을 달리던 중 고사리, 버섯, 꿀, 과자, 음료수가 놓인 가판대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해발 3000미터가 넘는 고개를 네댓 번 넘고서야 드디어 산꼭대기 마을인 납지(Nabji)에 도착했다. 부탄 왕국의 시조인 구루 린포체가 8세기에 들렀다가 축복을 내렸다는 마을, 아주 작지만 부탄인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성지다. 놀랍게도 우리 일행은 이 마을을 최초로 찾은 외국인이었다! 얼굴도 복장도 언어도 다른 이들을 보자 납지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박한 미소를 건넨다. 부탄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는 사원에 들어서자 린포체가 남긴 불상 몇 점만 유리 상자안에 보존되어 있다. 오래전 지역 주민들 사이의 평화를 이끈 화합의 상징이라고 한다. 따끈한 버터 차를 마시며 빛바랜 불상과 불화들을 천천히 응시한다. 먼 길을 달려 찾아간, 할머니 냄새 가득 벤 시골집에서 옛날이야기를 듣는 기분일까. 오래된 마룻바닥이 더없이 정겹게 느껴진다.

납지 마을의 골목을 걸어 보기로 했다. 사람 냄새 물씬한 집을 지나고, 계곡 건너 가파른 경사면에 층층이 이어진 계단식 논이 보인다. 우리가 묵을 마을인 코르푸(Korphu)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즈음 길을 따라 마을에 도착해 납지 라캉(Nabji Lhakhang)으로 들어섰다. 구루 린포체가 축복을 내렸던 신성한 사찰이다.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마니차들을 지나 법당으로 들어서니 우뚝 솟은 돌기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안쪽에는 보물급 불상과 불화들이 묵직하고도 화려한 기운을 품은 채 방울가득 매우고 있다. 불탕(Bumthang) 지방의 두 왕이 8세기에 구루 린포체 앞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맹세하며 오른손을 올렸다는 돌기둥의 윗부분이 반질반질하다. 현생의 수많은 싸움꾼들이 손을 댄 흔적이 있다. 이제 문화유산 마을인 코르푸의 진짜 매력을 만날 시간이다. 마당에 지핀 모닥불 둘레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대어섯 명의 여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한쪽에서는 전통주를 한 잔씩 따라 준다. 집에서 담근 술을 번갈아 내오는데 저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 어느 술이 제일 맛있는지 즉석에서 품평회가 열렸다. 상을 받은 여인이 부어 주는 술로 잔들이 넘쳐 흘렀고, 드높은 노랫소리는 어느새 춤과 함께 마을 가득 울려 퍼졌다. 갈수록 몸짓에 흥이 더해지고 일행은 코르푸 주민들 사이에 끼여 덩실덩실 마당을 돌았다.

총명한 기운이 넘치는 쿠르제이 라캉과 잠베이 라캉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부탄 중부 고원의 계곡 지대인 불탕으로 향했다. 부탄의 중요 성지인 쿠르제이 라캉(Kurje Lhakhang) 예불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쿠르제이는 '몸의 흔적'이란 뜻이다. 구루 린포체가 동굴에서 명상하며 악령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수행 중인 몸의 실루엣이 바위에 새겨졌다는데, 쿠르제이 라캉 중심벽 내부에는 지금도 그 흔적이 보존돼 있다. 반질반질한 마루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법당에 들어서자 저절로 거룩한 자세가 되어 벽에 둘러앉았고, 두 줄로 자리 잡은 승려들의 독경이 시작되었다. 느리고 장중한 '라르고!' 낭랑한 울림은 이내 합창이 되었다가 때론 빠르게, 때론 부드러운 물결이 되어 공간을 채웠다. 뇌를 깨우는 듯한 예불이 끝나자 승려들

1 산꼭대기에 자리한 납지 마을. 초입의 휘장들 사이로 구루 린포체의 기도처가 보인다.
2 납지 마을의 골목 풍경.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곳에 자리한 납지는 부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성지다.
3 부탄 왕국 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국민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히말라야산중 해발 3150미터에는 탁상 라캉이 숨은듯 자리해 있다.
부탄 왕국의 정신적 스승인 구루 린포체가 호랑이를 타고 날아와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서 '호랑이 둥지'라고 불린다.





1 파로 체추가 열리는 파로 종 입구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체추를 보러 온다. 2 파로 종 위쪽에 위치한 원형의 망루 내부는 현재 국립박물관으로, 3000점이 넘는 유물이 5층 전체에 빼곡하다. 3 수도 팀푸 어디에서나 보이는 붓다 도르덴마. 5층 건물 높이로 내부에는 12만 개의 불상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이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갔다. 뒤를 따르는 동자승의 바지 주머니에서 얼핏 콜라병이 보이고, 어른에게 받은 지폐를 꺼내 슬쩍 들여다보는 동자승도 눈에 띈다. 어린 스님의 천진한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따라 웃는다. 붓다의 미소를 훔친 기분이다.

모처럼 충만한 기운을 받은 후 불당 부근에 있는 잠베이 라캉(Jambay Lhakhang)을 찾았다. 7세기에 마을을 휩쓴 불길한 존재를 감지한 황제 송첸 감포가 하루 만에 108개의 사원을 세워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돌아가는 길에는 불타는 호수라는 뜻의 메바르 초(Mebar Tsho)에 들렀다. 위대한 성자 페마 링파(Pema Lingpa)가 등불을 들고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몸이 젖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채 물 밖으로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좁은 물길이 세차게 흐르는 가운데 수많은 참배객이 고요한 호수를 찾았다. 하루에 중요한 성지를 세 곳이나 방문하다 보니 붓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가끔 스님들 곁에서 주위들은, 뻗은 소리지만 이해가 되는 한 구절이 떠오른다. “비우면 된다.” 나아가 “비운다는 마음조차 없어야 한다.”

국내선 공항이 있는 불당에서는 스위스 게스트 하우스에서 이틀간 묵었다. 스위스 남자와 부탄 여자가 결혼해 운영하는 곳으로 어딘가 스위스다운 면서도 부탄스러웠다. 따져 보면 두 나라 모두 큰 산에 폭안겨 있는 건 같은데, 스위스는 물가가 세계 최고로 비싸고 부탄은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점이 재미있다. 스위스는 열려 있고 부탄은 숨은 듯 자리한 것도 흥미롭다. 모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나라인데, 스위스식 행복은 무엇이고 부탄식 행복은 무엇일까.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야 하며 그 바탕은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그리고 나라 간의 신뢰다”라고 한 국왕의 말이 떠올랐다. 불당에서 국내선을 타고 부탄의 수도 팀푸에 도착했다. 산마루의 금빛 불상이 지그시 내려다보며 히말라야를 넘어온 우리를 반기는 듯했다. 이리저리 다니며 12만 개의 불상을 만났고, 그 다양한 얼굴과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고개를 한참이나 뒤로 꺾어 높이가 52미터나 되는 붓다 도르덴마(Buddha Dordenma)도 찬찬히 훑어 보았다.





진하다진한 사람들

다시 파로로 돌아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체추 축제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의상에 기묘한 탈을 쓴 놀이꾼들이 마당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손오공을 떠올리게 하는 광대 셋이 아기 인형과 이불보를 소품 삼아 이야기를 풀어간다. 흥겨운 축제 마당과 장터 사람들이 뒤섞인 풍경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빠져든다. 그리고 다음 날 피날레를 장식할 탁상 라캉(Taktsang Lhakhang)으로 향했다. 산행 체비를 단단히 했지만 해발 3150미터 산꼭대기에 지은 절에 오르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호랑이를 타고 날아와 수행했다는 구루 린포체의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내 마음이 쉬이 따르지는 못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탁상 라캉에 들어서자 걸보기보다 실내가 넓고,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방이 미로처럼 엮여 기저기 박혀 있다. 어쩌면 그리도 험한 고행과 깨달음의 이야기가 방마다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올라가니까, 심지어 아이들도 가이드의 어깨에 올라앉아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심정으로 꾸역꾸역 발뚨꿈치에 힘을 주고 올라온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진다. 힘겹게 오른 뒤 내려오니 다섯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모두 '해냈다'는 뿌듯한 표정이다. 이로써 부탄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라는 장터로 다시 돌아왔다. 눈을 감으니 많은 장면이 스친다. 손가락으로 긴 염주를 굴리며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산골 외딴길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팔고선 QR코드 결제를 해 주던 투박한 손의 촌부, 국왕이 지나가는 길에 태어난 지 21일 된 아기를 보여 주며 축복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던 산골 부부, 화사한 옷차림으로 마니차를 돌리다 예쁘게 포즈를 취해 준 꼬마아가씨, 마니차 앞에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불경을 읽던 아저씨, 장터에서 저희들끼리 손을 잡고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던 동자승들, 카페에서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던 여자가수... 어쩌지 그들을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이 한결같이 수줍고 따뜻하고 맑았기 때문이다.



1 부탄인들이 순례를 하듯 찾는 파로 체추 기간에는 야외 장터가 열린다. 동자승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인다. 2 파로 중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본 축제 풍경. 5층 높이의 목조건물을 화려한 색과 문양의 휘장으로 장식하고, 연희자들과 관중의 차림새도 그에 걸맞게 화려하다. 부탄을 여행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강렬한 풍경이다.

취재 협조: 한국부탄인우회

취향을 입은 집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도시 건축 탐방에 나섰다. 홍윤주 건축가와 함께 눈길을 끄는 건물 앞에 멈춰 서서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를 채집했다.



1 담장이 생긴 뒤 증축한 삼각형 건물의 붉은색 외관이 눈길을 끈다. 2 홍윤주 건축가가 군산북페어에서 판매한 굿즈. 기와지붕, 방범창, 계단, 맨홀, 이끼 등 전국 각지에서 마주한 장면을 스티커로 제작했다. 3 원서동 빌라촌에서 발견한 나뭇가지 무늬를 새긴 벽돌.

인테리어 잡지를 펼치면 한 번쯤 머물고 싶은 공간이 연이어 등장한다. 유명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감각적인 조명,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감촉의 침구, 정교하게 마감한 책장, 나뭇결을 살린 테이블, 독특한 패턴의 러그 등 고풍스러운 아이템이 한곳에 모여 있다. 홍윤주 건축가는 잡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간 마주한 친구들의 집은 잡지 속 공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였다. 주변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에 주목한 그는 2011년 웹 매거진 <진짜공간>을 개설했다. 친구의 거주지를 소개하는 '네 방을 보여 줘', 필요에 따라 만든 독창적 구조물을 관찰하는 '비공식 건축', 우연히 마주친 매력적인 풍경을 포착하는 '도시 판타지', 동네 구석구석에서 생활 디자인을 수집하는 '디자인 채집', 일상을 편하게 하는 똑똑한 기술과 창의적 방식을 탐구하는 '생활 기술 창작',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카테고리

구분해 생활 밀착형 건축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 왔다. 그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진짜공간> <탐방다방> 등의 출간물로 이어졌고, 최근엔 문학잡지 <릿터>에 '우리가 지은 도시'라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기존 도시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짓는 건축가와 함께라면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을까. 설렘을 안고 진짜 공간을 만나는 짧은 여행을 떠났다. 첫 목적지는 안국역이다.

도시 풍경을 다시 읽다

안국역에서 만난 홍윤주 건축가는 지하철 역사부터 살펴보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드나들 뿐 미학적으로 바라본 적은 없어 호기심이 생겼다. "지하철역마다 콘셉트가 달라요. 안국역은 안국동의 옛 모습을 디자인 주제로 정해 화강석으로 부조 벽화를 만들었죠." 그의 손가락이 가리



- 1 안국역 주물 난간 앞에서 지하철역 내부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 2 출구 안내판 위쪽에서 발견한 단청을 모티브로 한 장식.
- 3 비상벨 위 도깨비 부조 조각이 방향이로 불청객을 위협하는 듯하다.
- 4 바퀴 달린 이동식 열쇠 매장. 아연도금 철판으로 된 외관에 '열쇠'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키는 곳을 보니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를 중앙에 두고 기와집, 산, 구름 등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된 안국동 일대의 모습을 반영한 안국역 내부를 훑다 보면 궁궐이 떠오른다. 줄눈 일부를 두껍게 강조한 벽면은 한옥의 목구조를 형상화한 듯하고, 주황색 재료로 마감한 천장은 나무 색을 닮았다. 출구 안내판 근처에서는 단청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발견한다. 역사 곳곳에서 마주한 도깨비 부조 조각은 이곳에서 5분 거리의 창덕궁에 있는 석수를 연상시킨다. 특히 화재 비상벨 부근에 설치한 조각은 장난삼아 벨을 누르려는 불청객을 방방이로 위협하는 것 같아 웃음을 자아낸다.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로 서둘러가다 보니 내부를 제대로 둘러본 적 없었는데, 구석구석 재밌는 요소가 가득했다.

안국역 밖으로 나오자 횡단보도 건너편의 열쇠 매장에 시선이 닿았다. 아연도금 철판으로 된 외관에 '열쇠'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다. 영업하는 날은 슬라이딩 셔터를 열고 지붕에 올려 차양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셔터를 닫은 건 영업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가게는 고정된 부지 없이 도시 공간을 임시 점유

해요. 보도 한쪽에 자리하니 이동 중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도시의 편의성과 연속성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정형화된 건물 사이에서 예상밖의 위트를 주는 이 매장은 <진짜공간>의 비공식 건축 카테고리에 업로드되었다.

다음 목적지인 원서동 빌라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사전에 메일로 전달받은 미공개 사진 중 매력적이라고 느낀 건물 대부분이 빌라촌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건물들을 세심히 관찰하니 차이가 느껴진다. 벽돌을 규칙적으로 쌓아 올린 건물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분을 돌출시켜 시각적 재미를 준 건물도 많다. "건물 형태가 같아도 대문 지붕이나 장식을 달리하면 새로워 보여요." 특히 보라색 출입문 장식 앞에 오래 머물렀는데, 색깔이 튀어서만은 아니었다. 골목 사이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두 개의 문이, 다른 쪽에는 두 개의 가로등과 거울이 자리했다. 의도한 설계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 없어 상상력이 자꾸만 커진다. 심지어 두 문 중 하나는 여러 개의 화분으로 막혀 있어 본래 쓰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원서동 골목에서는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새로운 디

자신의 벽돌이 나타난다. 구름·연꽃·나뭇가지 무늬가 새겨진 벽돌을 한번에 감상하는 건 아파트 거주민에게는 생소한 경험이다. 십장생을 조각해 넣은 방범창은 이제는 보기 어려워 자꾸만 눈길이 간다. 벽돌 색이 서로 다른 세 건물이다. 다다다다 붙은 모습도 흥미롭다. 건축가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개성 만점 삼층사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2000년대 이후 다세대주택 관련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필로티형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섰어요. 대신 구멍가게와 집 앞에 펼쳐놓는 평상이 자취를 감췄죠. 사람 간의 접점은 사라지고 삭막함이 남았네요.”

탐험가의 자세를 배우다

돌담 옆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잔을 부딪치는 사람들을 지나 골목 깊숙이 들어섰다. 홍윤주 건축가는 피식웃음이나는 장면을 마주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골목을 돌아다니는 동안 설 새 없이 고개를 움직이며 구석구석 스캔한다. 새로운 길을 찾듯 발길이 닿는 대로 건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면 다시 돌아온다. ‘진입 금지’ ‘길 없음’ ‘차량 통과 못함’ ‘연결 도로 없음’ 지도에 의지하지 않으니 거리의 메시지가 반갑기만 하다. 자신의 축을 믿고 무작정 건물로 들어가는 탐험가의 뒤를 따라가다 종로3가역 인근에서 구불구불한 계단을 찾았다. 두 건물에 같은 지붕을 덮어 한 건물처럼 사용하러다 보니 계단이 필요했고, 좁은 공간에 만든 계단이 꺾인 형태로 완성됐다. 이렇게 외부 공간을 안으로 들인 건물 내부는 또 하나의 골목 같다.

전통 문살 장식을 덧댄 유리문을 발견하자 헛웃음이 나왔다. 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이것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영뚱한 발상이 돋보이는 비슷한 사례를 들려준다. 보광동에서 발견한 붉은 벽돌집 기와 이야기다. “1980년대 주택 대문에 한옥에 어울릴 법한 기와를 얹은 거예요. 콘크리트 차양을 설치한 집이라 기능적으로는 필요 없으니 장식용인 거죠. 기와집에 대한 로망이나 관습이 현대건축에 적용된 것일까요. 대문만큼은 전통적인 맛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고집이 느껴지죠.”

반면 기능적인 이유로 만들었지만 운 좋게 미학적 요



1 원서동 빌라촌에서 인상 깊었던 보라색 출입문 장식. 두 문 중 하나는 여러 개의 화분에 가로막혀 본래 쓰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2 영뚱한 발상이 돋보이는 전통 문살 장식 유리문. 31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자투리 땅에 좁고 긴 건물이 들어섰다. ‘꽃’ 글씨로 뒤덮인 매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가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래 한 구절을 여러 번 듣는 것처럼 정지, 뒤로가기, 재생을 반복하며 눈앞의 풍경을 살핀다.





1

소를 얻은 경우도 있다. 한 쪽의 산수화를 보여주겠다는 말에 따라간 골목 경사로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났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회색 우수관에서 콘크리트 덩어리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우수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빗물이 건물에 부딪쳐 발생할지도 모를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연히 페인트가 흘러 멋스럽기까지 하다. 평상시라면 별 의미 없이 지나쳤을 콘크리트 덩어리를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감상했다. 가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래 한 구절을 여러 번 듣는 것처럼 홍윤주 건축가는 정지, 뒤로가기, 재생을 반복하며 눈앞의 풍경을 살핀다. 골목에 숨은 미학과 은근한 유머를 놓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 여행은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느긋하게 골목을 걷다 보면 집집마다 다르게 쌓은 벽돌, 개성을 뽐내는 대문 지붕, 막다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이 말을 걸어온다. 그 부름에 답하며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1 일렬로 주차한 탈것 삼총사. 실어 나르는 물건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2 우연히 흐른 페인트가 멋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



made in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인구 감소 지역 여행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정선

JEONGSEON

no.18



1



3



4

- 1 아리랑의 역사를 만나는 아리랑박물관.
- 2 아리랑박물관 상설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주한 그림.
- 3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4, 5 정선아리랑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 가옥을 살펴본 뒤 양반 증서를 발급받는다.

구성진 가락이 흘러나오는 곳

아리랑박물관 & 정선아리랑촌

정선아리랑은 1971년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민요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정선 곳곳에 아리랑과 관련된 장소가 많다. 2016년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공연장과 박물관을 갖춰 문을 연 정선아리랑센터가 그중 하나다. 아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아리랑박물관을 둘러보는 걸 추천한다. 2층 상설 전시실에 들어서면 조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함께해 온 아리랑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노랫말의 유형과 음악적 특성이 다른데, 이곳에서 지역 명창이 들려주는 아리랑을 감상할 수 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역수장마 칠라나/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아우라지 뱃사공아/배 좀 건네주게/싸릿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에 이어 서울·경기의 본조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충청도의 중원아리성 등을 차례로 들으며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아리랑박물관을 나선 다음에는 조선 시대 정선의 주거 문화를 재현한 정선아리랑촌을 산책하면 좋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 가옥을 살펴보고, 주말과 장날(2, 7일로 끝나는 날)에는 아리랑 학당에서 정선아리랑을 배우는 경험도 특별할 테다. 11월 7일까지 매달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는 정선아리랑촌 야외무대에서 마당극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가 펼쳐진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아리랑박물관), 애산로 37(정선아리랑촌)



2



5



1



3



4

추억을 선물하는 카페
나전역카페

1969년 개장한 나전역은 1989년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이용객이 줄고 역무원 없는 간이역이 되었다. 2020년 나전역카페로 새 단장한 뒤 한때 철거 위기까지 겪었던 이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현인 대표는 정선 사람들이 어렵게 지켜 낸 역인 만큼 본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며 인테리어를 꾸몄다. 탑승구를 알리는 표지판, 역에 걸려 있던 시계, 당시 쓰던 의자와 수납공간, 기장이 착용하던 모자와 제복 등이 그대로 남아 옛 풍경을 상상케 한다. 대표 메뉴는 곤드레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나전역 크림 커피. 여기에 곁들일 디저트로곤 곤드레 몽블랑 갈레트, 곤드레 크림 크루아상, 사과 크로플 등이 있다. 목련나무에서 채취한 꽃을 일곱 번 닦아 우린 목련꽃차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더덕라테 등 농카페인 음료도 다양하다. 메뉴 주문 시 옛 비둘기호 승차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 로컬 웰니스 브랜드 운기석9020의 팔찌, 나전역이 그려진 엽서와 마그네틱 등 정선 여행을 추억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여행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생긴다면 1년 뒤의 나에게 전할 내용을 담아 '미래로 보내는 엽서'를 써 보자. 엽서도 도착하는 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테다. 올 하반기에는 풀킴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TV 광고에 등장해 눈길을 끈 선평역도 정 대표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난다. 선평역은 카페, 독립 서점, 사진관의 기능을 합친 '기억 저장소'로 바뀔 예정이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38



2

5



1 2020년에 문을 연 나전역카페.
2, 3 미래로 보내는 엽서는 1년 뒤에 발송한다.
4 대표 메뉴인 나전역 크림 커피와 곤드레 크림 크루아상, 목련꽃차, 사과 크로플.
5 탑승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카페에 그대로 남아 옛 풍경을 상상케 한다.



1

+정선아리랑열차

강원도 청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관광 열차 정선아리랑열차가 운영을 재개한다. 정선선 낙석 발생으로 한동안 민둥산~아우라지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제천역과 아우라지역을 오가는 것으로 구간을 조정해 지난 5월 22일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매주 주말과 장날(2, 7일로 끝나는 날)에 왕복 1회 운행한다. 열차가 지나는 역 중 별어곡역은 '억새꽃', 정선역은 '오일장', 나전역은 '대합실 콘셉트의 카페', 아우라지역은 '주막 거리'를 테마로 운영 중이다. 각 역에서 특산물 장터나 막걸리 시음회 등을 열고, 열차 내에서는 스토리텔러가 지역 설화를 설명해 준다. 정선아리랑열차와 정선시티투어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관광 특화 콘텐츠도 마련할 계획이다.

2



© 정선레일바이크



3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여행

정선레일바이크

2005년 국내 첫 레일바이크로 운영을 시작한 정선레일바이크는 정선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15~20킬로미터로 달리는 철길 자전거로, 페달을 밟는 동안 정선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 눈에 담는다. 중간중간 터널을 지날 때는 서늘한 한기가 땀을 식혀 주고, 어둠을 지나 다시 만나는 햇살은 더없이 반갑다. 레일바이크는 동행인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특별하다.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에 닿으면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두 마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탑승객을 맞는다. 종점에 다다르자 여기저기서 수고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짧은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모든 레일바이크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풍경열차를 타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정선레일바이크는 철도 터널과 풍경열차를 활용한 이색 체험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구절리역과 제2터널 구간에서 'DJ와 함께하는 터널 뮤직 열차' 행사를 개최했다. 실내 조명과 음향 장비로 터널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745

- 1, 2 레일바이크를 타다가 터널을 지난 뒤 다시 만나는 햇살이 더없이 반갑다.
- 3 정선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 중 골라 탑승할 수 있다.
- 4 종착역에 도착하면 풍경열차를 타고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4





1

- 1 마을호텔18번가 입구.
- 2 마을호텔18번가 게스트하우스 초원점의 빛방.
- 3 골목에서 마주한 포토존.
- 4 박대우 어르신은 같은 자리에서 40년 이상 영주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다.
- 5 카페수작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고한읍은 1960년대 관광 개발이 시작된 후 20년 넘게 전성기를 누렸지만, 1989년 정부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이 차례로 문을 닫자 쇠퇴의 길을 걸었다. 빈집이 늘고 건물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골목은 점점 지저분해졌다. 삭막했던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다름 아닌 마을 주민들이었다. 정선 토박이인 김진용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 이사장의 주도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골목을 청소하고 화단을 가꾸며 마을의 모습을 바꿔 나갔다. 이후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소를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와 연결해 마을을 하나의 호텔처럼 꾸몄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중식당 국일반점과 삼색등이 손님을 맞는 영주이발관은 마을호텔18번가의 부대시설로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건물도 들어섰다. 지난 3월 소금빵맛집으로 이름난 카페 베이크우드 2호점이, 5월에는 지역 굿즈를 판매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라운지가 문을 열었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들의 개성이 담긴 작은 정원을 공개하는 골목길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골목길 합창경연대회도 함께 진행해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흥겨운 노랫말이 울려 퍼질 것이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6

마을호텔18번가
주민이 만든 폐광촌의 기적



4



2



3



5



1



1 시장 입구에서
만난 노란 안전모를
쓴 광부 모형과 벽화.
2, 4 갱도를 형상화한
고한구공탄시장.
3 카페 피고지고에서
판매하는 구공탄빵.

2



3



4

탄광촌 모습을 재현한 시장

고한구공탄시장

경일교 부근부터 400여 미터 이어지는 마을호텔18번가 골목을 걷다 보면 고한구공탄시장에 다다른다. 연탄을 때서 방을 덥히고 음식을 만들던 시절의 추억과 옛 탄광촌의 흔적이 시장 곳곳에 스며 있다. 노란 안전모를 쓴 광부 모형과 그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벽화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아빠! 오늘도 무사하!”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탄가루와 같이 잊혀지지 않을 흔적의 공간입니다” 등의 글귀는 전성기의 탄광촌을 상상케 하고, 그 시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진다. 갱도를 형상화한 시장 안에선 연탄재를 특수 가공해 그림과 글을 더한 연탄 아트를 전시하고, 연탄 모양의 빵을 굽는 카페도 운영한다. 카페 피고지고의 유미자 대표는 각각 흑미자 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넣어 구공탄을 피우기 전과 후의 모습을 한 구공탄빵을 개발했다. 꽃차 소를리엔 유 대표가 내려 주는 꽃차와 달콤하고 촉촉한 빵이 입안에서 어우러진다. 오징어 먹물을 활용해 석탄을 표현한 스콘도 판매한다. 올해도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에 맞춰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야시장도 열릴 예정이다. 플라마켓에서 정선의 특색이 담긴 물건을 구경하고, 바삭한 전에 시원한 막걸리를 곁들여 여름밤의 낭만을 느껴 보자.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46



1



3



4

- 1 심현주 대표는 직접 개발한 곤드레 분말과 시럽으로 이색 디저트를 낸다.
- 2 정선역과 벽화가 연결되도록 꾸민 포토존.
- 3 곤드레를 활용한 다양한 라테.
- 4 곤디의 대표 메뉴인 정선곤디치케는 3구, 6구 포장 가능하다.

2



곤드레 분말 시럽 이색 디저트

리뷰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쥐기 마지막에 맛만 같으면/ 고것만 뜯어다 먹으면 한 해 봄 살아난다.” 곤드레는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올 정도로 지역의 유명한 먹거리다. 쌀에 곤드레를 얹어 짓는 나물밥이 널리 알려졌지만, 곤드레를 활용한 이색 디저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선역 앞 광장에 위치한 곤디에서는 심현주 대표가 개발한 곤드레 분말과 시럽으로 다양한 음식을 낸다. 대표 메뉴는 정선곤디샌드와 정선곤디치케. 정선곤디치케는 콩가루 시트에 크림치즈를 올리고 곤드레 소보로를 더한 큐브형 케이크다. 치즈의 진한 풍미에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이랄 열린 뒤에 살짝 녹여 와인 안주로 먹어도 제격이다. 새로 출시한 크런치 베이글과 곤드레 몽글슈도 바삭하고 쫄쫄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곤드레를 사용한 음료도 흥미롭다. 아메리카노에 정선곤드레 크림을 올린 곤슈페너, 정선곤드레 시럽을 넣은 우유에 커피 크림을 얹은 곤커크라테, 정선곤드레 시럽과 딸기를 넣은 우유에 크림을 더한 곤딸크라테는 각각 개성이 뚜렷하다. 곤디는 다섯 개의 프라이빗 룸과 바 테이블, 야외 테라스 등으로 이루어져 방문 인원과 취향에 맞게 공간을 이용하기 좋다. 테라스에는 정선역을 배경으로 꾸민 포토존을 마련했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47



1



3



4

- 1 덕산기계곡에 자리한 숲속책방의 정식 명칭은 '나와 나타샤와 책을 읽는 고양이'다.
- 2 숲속책방으로 가는 비탈길에 세운 안내판.
- 3, 5 강기희·유진아 작가는 소장한 책과 기증받은 서적으로 헌책방을 열었다.
- 4 책방지기의 책을 구매하면 사인과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덕산기계곡의 헌책방

숲속책방

덕산기계곡은 문치재 고갯길을 굽이굽이 넘어야 닿는, 정선의 숨은 비경을 품은 곳이다. 정선 출신 소설가 강기희는 동화 작가인 아내 유진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책방을 차렸다. 이들 부부가 소장한 방대한 양의 책과 기증받은 서적으로 헌책방 숲속책방을 연 것이다. 이곳에 가려면 비포장 자갈길을 지나야 하고, 장마철에는 계곡물이 불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잠시 속세를 떠나 나만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레기도 한다. 숲속책방에서는 보물찾기하듯 오래된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초판본이나 절판된 책은 일부 판매하지 않지만 책방에서 보는 건 가능하다.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유를 누리는 시간도 소중하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지금은 유진아 작가 혼자 책방을 지키지만, 부부의 글과 그림을 한데 모아 낸 소설 <겨울 동화>는 여전히 숲속책방에서 만날 수 있다. 자연에 숨어들어 문장 하나하나에 몰두하고 싶을 때 숲속책방의 풍경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산기길 632

2



5



아리랑박물관 & 정선아라리촌

나전역카페

정선레일바이크

마을호텔18번가

고한구공탄시장

곤디

숲속책방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봉재석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정선 여행을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관광 상품 이용하기.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여행 경비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내놓은 관광 상품이다.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관광 열차 중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 인증을 하면 열차 운임비의 50퍼센트를 쿠폰으로 돌려준다.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40여 곳. 강원도 정선도 포함되어 정선 여행 시 자유여행 상품(열차 티켓)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정선의 주요 관광지(정선레일바이크, 화암동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에서 각 매표소에 부착된 QR코드로 방문 인증을 하면 된다.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KTX, ITX 등 열차 승차권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korail.com

지금 여기

관계의 예술가 천근성 | 뮤지엄 SAN 이배 개인전 <En Attendant: 기다리며> | 프란체스카의 답십리 시간여행
일상에 풍경을 더하는 서울의 감각적인 분재숍 | 경기도 행신역 맛집 탐험





만물미술트럭

거래방법
How to Trade

- 1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종업원에게 알려주세요.
Pick the item you like and tell the staff.
- 2 이젤 앞에 앉아 원하는 물건을 그려주세요.
Sit at the easel and draw the item you want.
- 3 그림이 곧 돈입니다. 완성한 그림으로 결제하세요.
Your drawing is your payment. Trade complete!

돈 안 받아요. 그림 받아요.

관계의 예술가 천근성

천근성 작가는 사람과 물건, 공간을 연결한다. 시선은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노숙인과 청소노동자, 시장 상인, 버려진 물건 같은 도시 주변부를 예술의 중심으로 불러온다. 예술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천근성 작가는 '이웃집 홈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과 수고, 배려와 기억을 교환하는 관계의 형식을 만들고자 했다. 작가가 수리노동을 내놓고 이웃 홈리스는 예술노동을 내놓는 거다.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앞 조형물에는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예술 작품은 오직 예술가만 만들 수 있을까. 천근성 작가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행동으로 보여 준다. 그를 알게 된 건 '만물미술트럭'을 통해서다. 알록달록한 셔츠에 낚시 조끼를 입고 파란색 팔 토시를 낀 채 만물미술트럭을 끄는 그를 예술가라 여기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돈 안 받아요, 그림 받아요"라고 적힌 트럭의 현수막을 보면 호기심이 동한다. 만물미술트럭은 동대문페스티벌 이벤트에서 출발한 이동형 시장 퍼포먼스다. 작가가 시장에서 장을 봐 트럭에 진열하면, 관객은 원하는 물건을 골라 그림을 그려서 값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물건을 오래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림은 결제 수단이 되고, 관객의 시간과 노동은 화폐를 대신한다. 그리고 천근성 작가는 낮에는 장사하고 저녁에는 물건값으로 받은 그림을 전시한다. 소비를 창작으로, 관람을 참여로, 거래를 관계로 바꾸는 실험이다. 만물미술트럭 퍼포먼스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면 만물미술트럭 주인공의 촌스러운 2대8가르마도, 유행 지난 보잉 선글라스도 예술적 행위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관계를 뒤집는 예술의 교환 실험

천근성 작가를 알린 작업은 '이웃집 홈리스' 프로젝트다. 작가는 서울역 홈리스가 건넌 새해 인사에 캔버스안 풍경화처럼 여겼던 홈리스를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파나 폭우, 폭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웃의 안부가 궁금했고, 버려진 것들의 쓰임을 찾는 예술 집단 '피스오브피스의 사물 돌봄 행위를 동네로 옮겨 왔다. '이웃집 홈리스'는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의 물건을 고쳐 주거나 쪽방, 텐트촌의 열악한 주거를 수리하고 그 대가로 노숙인들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받은 퍼포먼스다. 작가가 수리노동을 내놓고 이웃 홈리스는 예술노동을 내놓은 거다. 이를 통해 천근성 작가는 기술과 수고, 배려와 기억을 교환하는 관계의 형식을 만들고자 했다.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내고 싶지 않아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에서 사물 돌봄 강의를 했고, 유기 사물로 바퀴 달린 집을 만들어 거리가 삶터인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DDP 잔디언덕에 문을 연 '필사카페'는 돈 대신 필사를 커피값으로 받은 퍼포먼스였다. 타인의 삶이 담긴 문장을 따라 적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감하는 프로젝트다. 텐트와 폐박스를 활용해 부스를 짓고, '디딤돌 인문학'과 협업해 교정 시설 수용자나 노숙인처럼 사회 가장자리에서 살아온 이들이 쓴 시와 수필로 메뉴판을 만들었다. 문장을 따라 적으면서 글쓴이의 삶에 잠시 머물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과 손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수원역전시장커피'는 '필사카페'의 연장선에 있다. 전시를 위해 작가는 2개월 동안 노후한 상가 점포를 임대해 원두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상인들은 그림이나 시 같은 창작물로 커피값을 지불했다. 돈으로 값을 치르면 거래가 끝나지만, 값을 매기기 어려운 창작물은 거래 후 관계를 남긴다. 천근성 작가는 커피값으로 받은 창작물을 모아 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수원역전시장커피' 프로젝트의 범위는 카페 운영부터 미술관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퍼포먼스의 관람객이던 사람들이 미술관에 자신의 창작물이 전시되면서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경제적 교환의 범칙을 낫설게 뒤집는 사람, 천근성 작가는 도시 주변부 사람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호혜 관계의 이웃으로 바라보고, 기부가 아닌 그림·노동·말·기억을 교환하는 장면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능성을 실험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누구와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겉으로 가볍고 귀찮아 보이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날카롭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가' '예술은 어디까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수원역전시장커피'를 위해 시장 상가의 빈 점포를 임대해 원두커피 전문점을 운영했다. 커피값 대신 그림이나 시, 낙서 등의 창작물을 받았고, 이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다.
2, 4 집을 고쳐 주고 수리비로 그림을 받은 '이웃집 홈리스' 프로젝트는 '집 수리' 편과 '노점상' 편으로 나뉜다. 집 수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림을 더 모으기 위해 서울역 앞에 노점상을 차렸다.
3 서울 통의동 보안어관 단체전 <습습하하>에서 선보인 작품 '트래쉬 만다라'는 버려진 장난감을 조각조각 해체해 만다라처럼 배열한 작업이다.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죠. 1999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닥컴 버블이 한창이었는데, 컴퓨터 관련 기술을 익히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학원에서 웹 관련 기술을 익혔고, 고등학생 때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용돈벌이를 했죠. 부모님 뜻에 따라 대학에 진학했지만 잘 맞지 않았어요. 미술대학은 순수 미술을 연구하고 작가를 양성하는 곳인데, 당시 저는 작가라는 직업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기질을 발휘해 미술 관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름 전공을 살린 거라 여기며 조형물 만드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어요. 다 해 보고 내린 결론이 '나는 작가가 되겠다'였어요.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나요?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의 이사님이 던진 한마디,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 수 있는 건 다 작가들 덕분"이라는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미술 관련 산업은 작가가 있어야 작동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르바이트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9년이 나 다닌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해였는데, 저 같은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 있는 문래동으로 들어갔어요.

2012년 정크아트대회 수상 경력이 있어요. 문래동의 공간성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작업실 위치가 고민이었어요. 작업 과정에서 소음과 분

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20세기 모던 보이들이 종로 다방에 모였던 것처럼 21세기 작가 지망생은 모여 있어야도 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서울 문래동이었어요. 솔직히 정크아트대회에 나가게 된 건 상품이 욕심나서였어요. 부상이 뉴욕 여행이었거든요. 광고를 보자마자 짤 것도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1등을 했죠.

만물미술트럭으로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정크아트대회 우승 후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회에서 수상하고 작품을 판매하면서 정크 아티스트로 이름을 알렸어요. 걸으려는 꽤 잘나가는 예술가가 된 거죠.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시에 노출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환경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만드는 것이 좋을 뿐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이 없었죠. 스스로 작가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를 점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에 지원했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리셋하고 싶었어요.

리셋에 성공했나요? 대구예술발전소 스튜디오 옆에 청소노동자 쉼터가 있어요.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곳이죠. 작업실 근처 송풍관 판매 거리를 매일 지나는데, 계속 눈에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송풍관으로 대구

예술발전소와 청소노동자 쉼터를 연결하는 설치 작업을 했어요. 이후 주고받는 게 생겼어요. 시원한 바람을 보냈더니 송풍관 모터 위에 풀이 놓이더라고요. 좀 더 긴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저의 새로운 이웃들을 전시에 초대했어요. '예술은 모른다'며 거절하시기에, 제가 전시 해설을 자청했구요. 전시실을 청소하면서 작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구나 미술을 향유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다면 작가로서 내 작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형태가 아닌 행위도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표를 맡고 있는 피소오브피소는 어떤 조직인가요? 대구의 레지던시에서 나와 많은 지역을 떠돌았어요.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니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작업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세계여행을 다녀오면서 한 템포 쉬기도 했고요. 이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인이 운영하던 문래동 게스트 하우스를 물려받았어요. 여행을 좋아하니 잘 운영할 거란 기대와 달리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게스트 하우스를 접고 일부 공간을 작업실로 만들어 마을회관 같은 곳으로 운영했어요. 문래동에 터를 잡았던 2011년에 비해 작업자들끼리 교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귀농의 꿈은 어떻게 됐나요? 농촌에 잘 적응하려면 제대로 농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사 학교를 찾아갔어요. 전국귀농운동본부였는데, 농사 기술이 아닌 식량 위기와 기후 재난을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생태에 관심이 많고 한때 업사이클링 작업을 했던 저와 결이 잘 맞았어요. 안정적으로 귀농하기 위해 공동체 이루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문래동 마을회관에 적용해 봤어요.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공동체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버무려 쓰다 남은 자투리 물건을 교환하는 '자투리 잡화점'을 열었어요. 자연스럽게 교류가 늘어나면서 파티와 워크숍을 열고, 작가들끼리 협업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다 코로나9가 닥쳐 예술가들이 고립되었어요. 코로나블루를 겪는 이들에게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자, 가끔 축구도 하자고 선동했어요. 피소오브피소는 그렇게 탄생한 동료 작가들의 모임이에요. '평화의 조각들'이란 뜻인데, 자투리 잡화점의 상호이기도 하죠.

'이웃집 홈리스' 프로젝트에서는 왜 작가님을 그리게 했나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저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어요.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기억해 줬으면 했어요. 둘째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 본 적이 없거나 아주 오래됐을 거라 여겼거든요. 안 해 본 걸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새롭게 시도하고,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거든요. 나를 한계 짓지 않고, 나의 한계를 넘는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모아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미술관에 오길 바랐어요. 서울역에는 공공 미술관인 문화역서울284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노숙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

기 위해, 혹은 화장실이 급할 때도 미술관에 들어가거든요. 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이웃집 홈리스> 전시는 문화역서울284가 아닌 경북공예미술관에서 열었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방명록을 작성한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웃집 홈리스'가 노동과 그림을 교환한 첫 프로젝트였나요? 제주도에 서 쓰레기 기념품을 만들어 관광객들한테 판매한 적이 있어요. 관광객이 만든 쓰레기를 스스로 섬박으로 가져가게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석관 시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석관시장에 대한 기억과 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은 참기름집의 기름을 교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이웃집 홈리스' 이후에는 돈 대신 필사를 커피값으로 받는 '필사 카페'를 운영하고, 이를 확장해 수원 역전시장에 카페를 차리기도 했어요.

공공 미술이나 사회 참여 예술을 하면서 수혜자와 제공자의 비대칭을 경계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학창 시절에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보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으니 외국인을 만나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저는 작가로서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예술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이웃집 홈리스' 때는 그들을 대상화하는 걸 경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책에는 담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사람들과 섞어야 그 감각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홈리스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야학 교사로 활동하면서 그곳의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점점 받았어요.

요즘은 만물미술트럭을 끌고 전국 일주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지방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다면 장을 봐요. 올해는 지역에서 기른 것을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원주 시장에서 장을 봐서 부산이나 광주에서 만물미술트럭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여행은 익숙한 일상의 사이클에서 조금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몸이 낯선 공간에 있으면 무뎠던 감각이 선명해지는데, 그 감각이 진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목욕탕에서 바로 온탕에 들어갈 때와 냉탕을 거쳐 온탕에 들어갈 때의 감각은 완전히 달라요. 경험에 따라 같은 장소와 같은 장면도 다르게 감각하는 거죠. 저는 여행을 통해 내 안에 축적된 경험들이 정동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피게 돼요. 작은 낯설이 자극이 되어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 감각을 다시 삶과 작업에 적용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해 저에게 여행이란 정동의 흐름을 살피고 예술 활동으로 이행하기 전 감각을 깨우는 동기부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색채

기다림, 내내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는 이 마음은 어떤 색일까.
30여 년간 숲의 심연을 탐구해 온 작가 이배는 오로지 흑과 백,
어둠과 빛의 변주로 기다림을 그려 낸다.





육중한 솟덩어리를 켜켜이 쌓아 올린 설치 작품 '불로부터(Issu du Feu)'(2026). 기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한 작가는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화와 치유의 바람을 담아 무지엄 입구에 이 작품을 배치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 뻑뻑한 솔숲을 지나 뮤지엄 SAN(산)에 도착한다.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 그대로 도심에서 벗어난 깊은 산속에 사계절의 변화를 전시의 일부로 품은 곳이다. 느린 걸음으로 플라워가든을 지나 워터가든에 들어서자 저 멀리 검은 기둥이 보인다. 다가갈수록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높이 8미터, 폭 5미터, 무게 7톤에 달하는 설치 작품 '불로부터(Issu du Feu)'다. 작가는 큰 화재가 났던 강원도 고성 불타 버린 숲에 충격을 받고 정화와 치유의 바람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잊

고 나무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리면서 다시는 그런 큰 재앙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염원을 담았습니다." 육중한 솟덩어리를 켜켜이 쌓아 올린 이 기둥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뮤지엄 SAN을 가득 채우는 이배(Lee Bae)의 대규모 개인전 <En Attendant: 기다리며>의 강렬한 서막이다.

순백의 비움, 칠흑의 채움

이배를 설명하려면 먼저 솟을 이야기해야 한다. 1989년 프랑스로 건너간 가난한 유학생의 눈에 띈 것이 슈퍼

마켓에서 파는 솟이었다. 서양인에게는 그저 바비큐에 쓰고 버릴 땀감이었지만, 동양의 작가에게는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 목탄으로 데생을 하던 기억을 살려 솟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검은 먹으로 푸른 난초를 그리는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작가적 상상력을 입혀 나가며 작업을 확장했다. 그렇게 솟이라는 물질에 내재된 생성과 소멸, 순환의 원리를 일관되게 탐구하는 동안 솟은 이배의 예술 그 자체가 되었다. 작가는 느티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골라 고향 청도의 오래된 솟가마에서 한 달간 구워 각기 다른 밀도와 색을 끌어낸다. 전시장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교하게 압착한 솟가루

를 물감 삼아 거대한 붓으로 그려 낸 열여섯 점의 '붓질(Brushstroke)' 연작을 마주한다. 그야말로 뜻밖의 조우!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작가의 호흡과 수행적 움직임이 빚어낸 에너지의 궤적이다. 가늘고 굵은 선이 겹치면서 만들어 내는 깊이, 흑과 백이 다양한 채도로 겹치며 생기는 공간감이 고요하게 호응한다. 통창 너머의 산과 나무,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가 작품 위로 겹쳐질 때, 관람객은 비로소 작가가 왜 이 작품들을 전시장 안이 아닌 로비에 전시했는지 직관적으로 깨닫는다. 자연과 예술이 경계 없이 섞이는 잘한다. 덕분에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White'라 이름 붙은 공간으로 들어선다. 사방이 흰 종이로 배접된 공간에



정교하게 압착한 솟가루로 그린 열여섯 점의 연작 '붓질(Brushstroke)'(2026). 장벽의 산과 나무, 움직이는 빛, 계절의 변화와 호응하며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 Museum SAN, Photo by Sangtae Kim

30여 년간 숲이라는 물질에 내재된
생성과 소멸, 순환의 원리를 일관되게
탐구하는 동안 숲은 이배의 예술
그 자체가 되었다.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쏟아
지는 빛에 아찔한 현기증이인다. 안내 요원이 나직한
음성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한 이유다. 방은 온통 백색
이다. 천장에서 드리워진 빈 종이 가 공간을 가로지르
고, 목직향 양감과 거친 질감만 있는 흰색 덩어리들이
곳곳에 놓여 여백을 조각한다. 채움으로 얻는 비움이
랄까. 이 방에서 유일하게 물성을 드러내는 것은 스테
이플러 심을 박아 넣은 철의 드로잉이다. 비물성의 공
간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작가는 혼자서, 스케치
없이 무려 3만 5000개의 스테이플러를 박아 넣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땅을 갈 듯이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의 노동 집약적 예술혼이 그곳에
서늘하게 박혀 있다.

이어지는 'Black'의 방에 들어서자 겹겹이 쌓인 숲 더
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흡수한
듯 칠흑같이 검은 숲 덩어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
로 생생한 기운을 내뿜는다. 불구덩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동안 다시금 생명을 얻고 일어섰다는 듯이!
포도나무 숲과 소나무 숲, 잣나무 숲, 참목 숲으로 이
루어진 목직한 더미 아래서 붓질이 힘차게 뿔어 나오
며 어우러지는 모습은 수목산수화를 입체로 구현한
듯 생생하다. 한편 건너편 벽 앞에는 많은 관람객이 발
길을 멈추고 서 있다. 폭 10미터가 넘는 여섯 개의 면이
이어지는 이 작품은 숲 조각을 얇게 자른 단면을 붙여
구성한 평면 작업으로, 들여다본 적 없던 숲의 표면을
마주하는 낯선 경험을 선사한다. “이게 잘라 붙인 거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개가 아니고 숲?” “보석보다
아름답다!” 연신 터져 나오는 관람객들의 탄성이 고요
한 공간에 청량감을 불어넣는다. 흑과 백, 음과 양이
이루는 완벽한 균형에 대한 헌사다.

흑으로 가득한 공간, 청조캘러티 2에 전시된 'Black'. 포도나무와 소나무, 잣나무로 만든 숲 더미와
그 아래서 뿔어 나오는 숲 조각들이 아우러지며 입체적인 수목산수화를 그려낸다.

기다림에 관하여

다음 공간에서 마주하는 영상 작업은 어쩌면 이번 전
시의 백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9미터 높이로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작가의 고향 청도의 논이 끝없이 펼쳐
진다.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제가 화가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농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도 기도하는 마음
으로 농부가 땅을 갈 듯 준비했어요.” 흑백 영상 속에
는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떠났던 아들이 백발이 되
어 돌아와 맨발로 논 위에 붓질을 한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움직이는 작가의 몸짓을 좇
으며 관람객 역시 숨죽인 채 몰입하게 되는데, 작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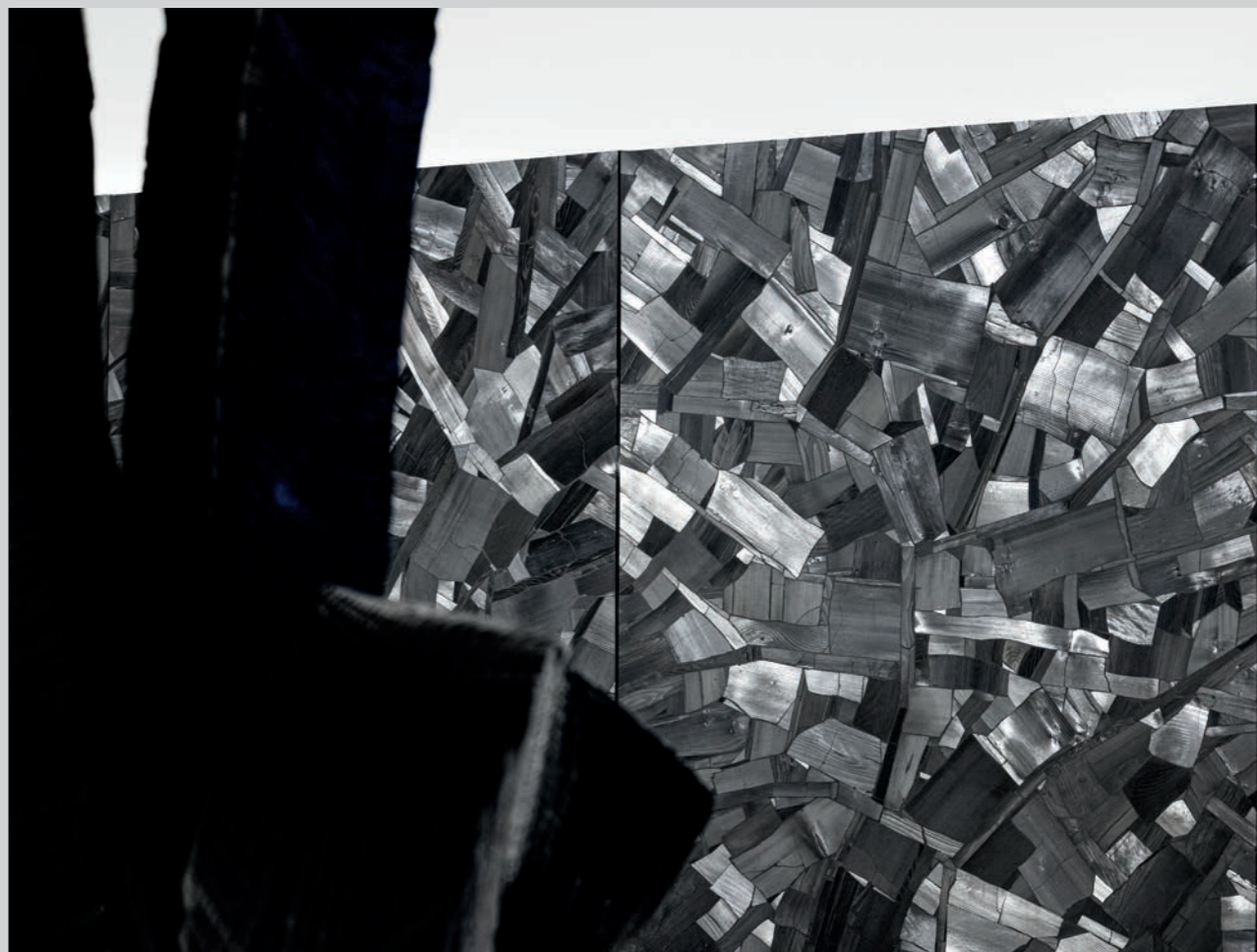


는 이름으로 스스로 짙어진 고통과 안내, 순수와 열정
을 들여다보는 듯해 이내 숙연해진다. 앞서 본 아름다
운 작업들이 단순한 붓질이 아니라 명상과 호흡, 성찰
과 사유를 통해 나온 것임을 마침내 확인하게 되는 의
미심장한 순간이기도 하다. 바닥에는 영상 속 그곳, 청
도의 흙으로 구현한 논이 펼쳐져 있다. 얼마간의 기다
림이 더해지면 이 흙에서 실제로 썩이 트고 미생물이
생장하며 땅과 시간의 순환적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작가가 이 공간을 'Becoming'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벤치에 기대앉아 몇 번이고 영상을 들여다보다 전시
제목 '기다리며를 다시금 떠올렸다. 누구에게나 기다
림의 대상이 있다. 작가는 내내 무엇을 기다렸을까. 전
시를 처음 공개하던 날, 많은 미디어 앞에서 들려준 작
가의 가감 없는 고백이 그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작가로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술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
고,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실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고요.



백으로 채워진 공간, 청조캘러티 1에 전시된 'White'. 양감과 질감, 빛으로 가득한
이 공간에 작가는 3만 5000개의 스테이플러 심을 박아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얇게 자른 숲 조각의 단면을 평면으로 구성한 '불로부터(Isu du Feu)'(2003).
제각기 다른 흑색을 품은 숲 조각들이 포석보다 아름다운 빛을 뿜어낸다.





최조클래리 2의 'Black'은 바닥의 폭넓은 드로잉을 따라 아래층의 공간과 유연하게 연결된다.



무의 공간에 설치된 여섯 점의 조각 'Brushstroke'.

누구에게도 말 못 하지만 절망적일 때도 여러 번 있었 습니다. (중략) 가장 진지하게, 가장 순수해지려고 하 는 노력. 작가의 일안에 그제 들어 있지 않을까요. '기다 리며라는 제목은 그런 시간과 과정으로부터 나온 제 념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 구도자와 같은 자세로 수행하듯 작업에 몰두했음에도 자신의 부족 함을 타하며 순수와 영감을 갈구하는 예술가의 운명! 전시장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면 마지막 공간에 다다 른다. '무(無)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은 야외 정원에는 멀리 숲을 향해 자라난 나무 같기도 하고, 하늘을 바 라보는 사람의 뒷모습 같기도 한 10미터 높이의 브론 즈 조각(우뚝 세우기 위해 땅을 무려 3미터나 파다) 여섯 점이 흩어져 있다. 뮤지엄 SAN의 건축물, 치악산의 유려한 산세와 어우러지며 마침내 완성되는 풍경화라 고 해야 할까. 무심히 서 있는 조각 사이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호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움직임과 계 절의 변화를 함께 느껴 보는 것이 이 전시의 마지막 모 멘트다.

작가가 평생을 바쳐 일관되게 탐구해 온 주제를 이토 록 아름답게 펼쳐 보인 전시가 근래에 또 있었던가. 직 관적으로나 미학적으로 개념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 되는 전시를 만났을 때의 충만함이 느껴졌다. 도심에 서 꽤 떨어진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과연 어떤 감각 을 경험했을까.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낮은 음 성으로 설명을 이어 가는 안내자가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답한다. "흰 방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머물렀던 분이 계셨어요. 천천히 걷기도 하고 우두커니 서 계시 기도 했어요. 다른 관람객들을 위해 이동해 달라고 말 씀드려야 했지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그모습 이... 잊히지 않네요." 그가 왜 순백의 공간을 떠나지 못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고 짐작해 볼 뿐. 흑과 백, 그 사이에 켜켜이 쌓인 억겁 의 시간 어딘가에 있는 그 무엇.



© Museum SAN, Photo by Sangtae Kim

+

이배

195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파리로 이주해 작업했다. 운명적인 재료인 솜을 만나 30여 년간 단일 매체를 파고들며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소멸을 거쳐 새로운 에너지를 응축하는 솜의 생명력에 동양적 정신과 수묵의 사유를 입혀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조형 언어로 확장해 왔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기사장(2018),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0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2023) 등을 수상하고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한국의 정신을 국제적인 현대미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 작가로 자리 잡았다.

최조클래리 3의 'Becoming', 작가의 고향 청도의 흙으로 재현한 노과 북질 장작 과정을 담은 명상적인 영상이 어우러진다.



프란체스카의 답십리 시간 여행

Francesca's Time Travel through Dapsimni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레트로 열풍 속에 답십리 고미술 상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독일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답십리 골목을 걸으며 오래된 미래를 마주했다.

As retro culture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Dapsimni Antique Art Street in Seoul is drawing fresh attention. Walking through the alleys of Dapsimni with Francesca from Berlin, we encountered a place where the past and future quietly overlap.

사물의 시간을 불러오는 마법, 예명당

Yemyeongdang:
The Magic of Objects That Carry Time

서울 답십리가 고미술의 성지가 된 건 1980년대,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이곳으로 터전을 옮기면서였다.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답십리에는 2·3·5·6 네 개동에 14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다. 메인 상가는 2동으로, 세련된 감성으로 골동의 우아함을 어필하는 고복희 엔틱숍, 박제된 유물로서의 골동이 아닌 생활 속 쓰임을 제안하는 오브 등이 자리한다. 이렇듯 답십리 고미술 상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1세대 숍의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예명당이 대표적이다. “1년 전부터 손님들에게 차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물건을 만지고 사용하며 색다른 경험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답십리에서 25년 업력을 쌓은 정영섭 대표가 고려 시대 찻잔에 담긴 말차를 건네자 숍에 있던 조선 시대 가족신을 신고 갓을 쓴 프란체스카가 조심스레 받아 든다. “독일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쓰는 걸 당연시해요. 저희 가족도 증조부가 쓰시던 가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곳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세월이 깃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프란체스카가 예명당 분위기와 잘 어울려 보인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21(2동 164호)

Dapsimni became a center of antique culture in the 1980s, when merchants from the Cheonggyecheon area relocated here in search of lower rents. More than fifty years later, around 140 shops now fill Buildings 2, 3, 5, and 6 of the complex. The heart of the market lies in Building 2, home to spaces such as Gobokii Antique Shop, which presents antiques with refined elegance, and OF, which approaches antique objects not as relics frozen in time but as items still meant to be used in daily life. As new perspectives reshape Dapsimni Antique Art Street, even first-generation shops have begun to change. Yemyeongdang is one such example. “About a year ago, I started serving tea to visitors,” says owner Jeong Young-seop, who has worked in Dapsimni for 25 years. “I wanted younger people to touch these objects, use them, and experience them in a different way.” He hands Francesca a cup of matcha served in a Goryeo-era teacup. Dressed in Joseon-style leather shoes and a traditional gat, she carefully accepts it. “In Germany, using old objects is completely natural,” Francesca says. “My family still uses furniture that belonged to my great-grandfather. Maybe that’s why this place doesn’t feel unfamiliar to me at all.” Her appreciation for objects shaped by time seems perfectly suited to the atmosphere of Yemyeongdang.

Address 2-164, 21, Gomisul-ro, Dongdaemun-gu, Seoul





답십리 속 오래된 미래, 호박포크아트갤러리

Hobak Folk Art Gallery:
An Old Future Inside Dapsimni

“어, 이걸 할머니 댁에서 자주 봤던 패브릭이에요!” 프란체스카가 반가운 얼굴로 호박포크아트갤러리에 들어선다. 패브릭뿐 아니라 그릇과 액자 등 시선이 닿는 곳마다 환한 미소가 뒤따른다. “맞아요! 독일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현재 아트 디렉터 소니아를 중심으로 네 명의 작가가 수집하거나 작업한 것들을 전시·판매하고 있어요.” 2세대 숨중 하나인 호박포크아트갤러리는 빈티지 의류 숍 수박빈티지의 김정열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골동품을 현대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독특하다. 포스트모던 작가 제프 쿤스의 작품 옆에 100년의 세월이 지난 농기구를 걸어 두고, 미드센추리 스타일 수납장 위에 가야시대 토기를 올려놓는 식이다. 분기별로 특정 작가나 브랜드와 협업해 전시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동서양의 오브제가 한자리에 어우러진 풍경이 고혹적인 미감을 뽐내낸다. 호박포크아트갤러리에 폭 빠진 프란체스카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을 진지한 시선으로 훑으며 탐색한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21(2동 118호)

“Oh, I used to see this fabric at my grandmother’s house all the time!” Francesca steps into Hobak Folk Art Gallery with immediate excitement. Fabrics, dishes, frames, and objects throughout the space draw warm smiles wherever her eyes land. “That’s right. They came from Germany,” explains the gallery. “Four artists, led by art director Sonia, collect and create the works displayed here.” One of the district’s second-generation spaces, Hobak Folk Art Gallery is run by Kim Jeong-yeol, owner of the vintage clothing shop Soobaak Vintage. The gallery’s approach to antiques feels distinctly contemporary. A 100-year-old farming tool hangs beside a work by postmodern artist Jeff Koons, while pottery from the Gaya period rests atop a mid-century cabinet. The gallery also hosts collaborative exhibitions with selected artists and brands throughout the year. Objects from East and West, gathered across centuries, coexist in a single space, creating a quietly mesmerizing atmosphere. Deeply absorbed, Francesca slowly moves through the gallery, studying each piece with focused attention.

Address 2-118, 21, Gomisul-ro, Dongdaemun-gu, Seoul





경쾌한 스페셜티의 세계, 커피그라운드즈

Coffee Grounds:
A Fresh Take on Specialty Coffee

답십리 고미술 상가의 번잡한 대로변, 오래된 건물 사이에서 고즈넉한 분위기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 스페셜티 커피의 도시, 베를린에서 온 프란체스카도 반한 이곳은 커피그라운드즈. 로스터리 브랜드 하루코빈스에서 운영하는 커피그라운드즈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문을 지키는 돌사자상부터 창 너머로 이어지는 야외 테이블까지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라테를 한 모금 마신 프란체스카가 “어머, 왜 크림치즈 맛이 나죠?”라며 안지혜 대표를 바라본다. “원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로스팅을 가볍고 섬세하게 해요. 그래서 입안의 커피가 깔끔하고 뒷맛이 상큼하죠.” 설명을 들은 프란체스카가 더 신중한 표정으로 커피를 음미한다. “네덜란드 친구 야닉을 이 동네에 꼭 데려오고 싶어요. 한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한국 문화와 역사에 호기심이 많거든요.” 답십리 탐험의 즐거움을 혼자만 누릴 순 없다는 표정. 프란체스카의 다음번 시간 여행에는 분명 야닉이 곁에 있을 듯하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길 57

Along the busy main road of Dapsimni Antique Art Street, tucked between aging buildings, sits a specialty coffee shop with a calm and understated mood. Even Francesca, who comes from Berlin, a city known for specialty coffee culture, quickly falls for Coffee Grounds. Operated by the roastery brand Harucobean, Coffee Grounds offers a subtle sense of escape from everyday life. From the stone lion statue guarding the entrance to the outdoor seating visible through the windows, the café feels relaxed and open. Taking a sip of her latte, Francesca looks surprised. “Why does it taste a bit like cream cheese?” Owner Ahn Ji-hye smiles. “We roast lightly and delicately to preserve the character of the beans. That gives the coffee a clean taste and a light, refreshing finish.” After hearing the explanation, Francesca takes another careful sip. “I really want to bring my Dutch friend Yannick here someday. He’s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en years and is deeply curious about Korean culture and history.” Her expression suggests that the pleasures of exploring Dapsimni are too good to keep to herself. On her next journey through time, Yannick will probably be there beside her.

Address 57, Dapsimni-ro 48-gil, Dongdaemun-gu, Seoul



프란체스카 부이다크
Francesca Bujdak

독일 베를린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다. 2020년 한국에 정착한 뒤 뮤지컬 의상 팀에서 일하며 성우로도 활동하는 등 늘 예술을 가까이했다. 현재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며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한다. 한국 이름은 가람이다.

Born and raised in Berlin, Germany, Francesca studied theater in university. Since settling in Korea in 2020, she has remained close to the arts, working with a musical costume team and as a voice actor. She is now focused on illustration and works as an artist. Her Korean name is Garam.

분재, 한 뼉의 미학

한 뼉의 화분에 설계된 거대한 자연,
분재는 도심 속 사유의 정원이자 휴식처가 되어 준다.
공간에 자연을 들이는 서울의 감각적인
분재 솜을 소개한다.

1

도심 속 작은 숲 아틀리에 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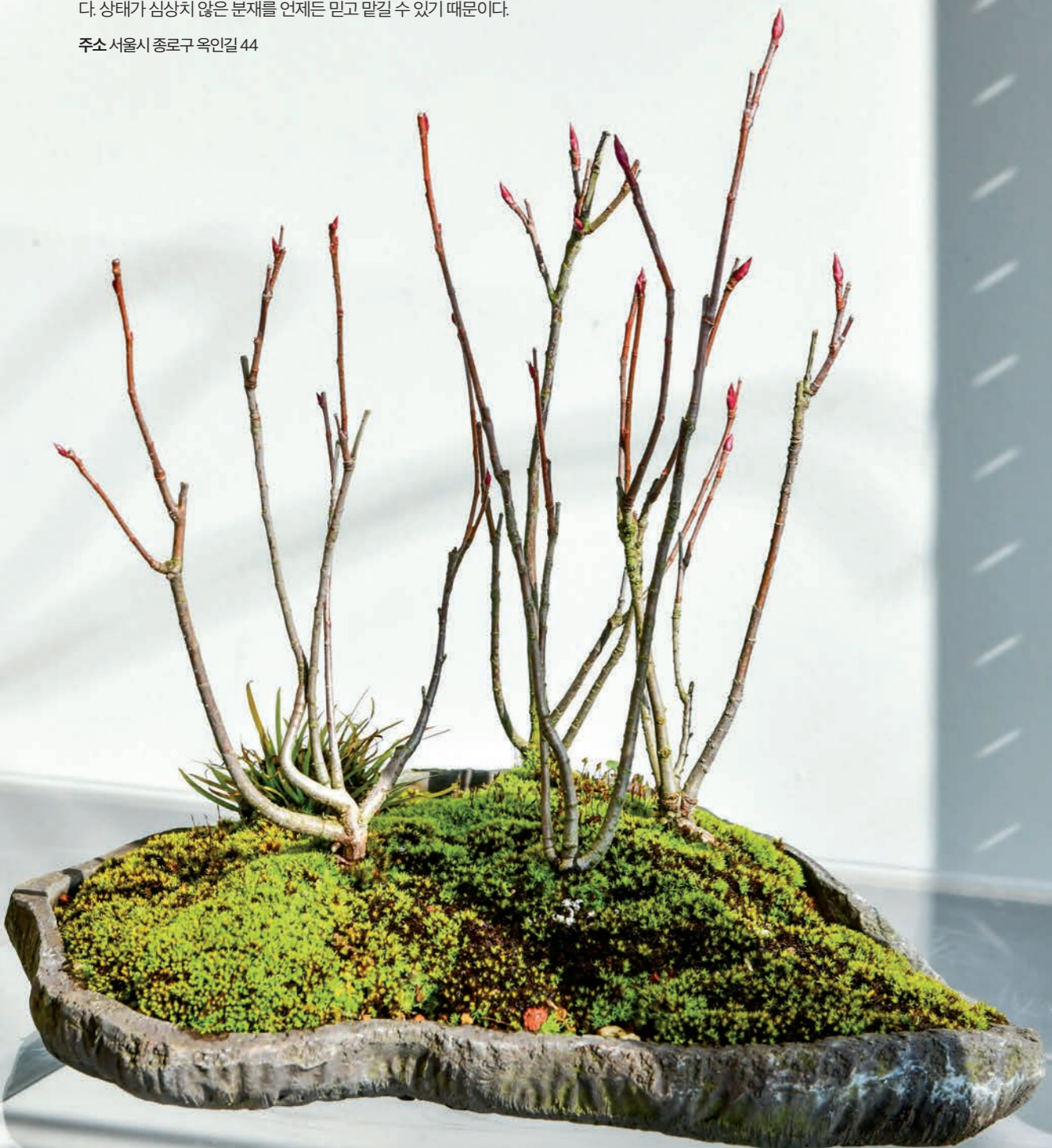
‘나무에 새로 돋은 가지’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이름을 딴 아틀리에 애채는 공간 디자이너 출신인 채혜린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이자 갤러리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정원 가꾸는 모습을 보고 자란 채 대표에게 나무를 돌보는 일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계절마다 나무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정성 어린 손길을 건네면 더욱 강해지는 나무의 생명력이 더 큰 감동이 있었다. 대학교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채 대표는 나무를 하나의 풍경이자 시간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여긴다. 아틀리에 애채가 단순한 분재 솜을 넘어 전시 공간이자 창작자들의 아지트로 쓰이는 이유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 자리한 아틀리에 애채에 들어서면 화이트 톤의 공간 깊숙이 자연광이 들어와 마음이 따스해진다. 마치 숲속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 수형을 자연스럽게 가꾸면서 화분과 돌, 이끼 등을 이용해 하나의 작은 세상을 만든 손길이 경이롭다. 계절별 <애채숲 예술전> 같은 기획 전시를 열어 회화, 가구,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협업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채 대표와 전문 가드너들이 진행하는 분재 클래스에서는 나무의 형태를 잡는 법부터 분갈이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준다.



나무들의 소우주이자 식물 병원
레이아웃플랜트

서울 인왕산 수성동계곡으로 향하는 서촌의 골목길, 한적한 풍경 사이로 나무들의 소우주가 펼쳐진다. 식물 편집 솜씨자 분재 스튜디오인 레이아웃플랜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절제된 공간 구성이다. 무채색의 차분한 인테리어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저마다 독특한 수형의 분재와 관엽식물이 마치 갤러리의 조각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다. 조대성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분재와 함께하는 삶을 이어 왔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양주 분재원에서 나무를 돌보고 금·토·일요일에는 레이아웃플랜트에서 분재 클래스를 연다.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분재원으로 분재를 가져가 돌본다. “분재를 하던 이가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 그의 분재를 대신 돌봐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나무는 기나긴 삶을 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작은 나무 앞에서 늘 겸손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레이아웃플랜트를 식물 병원이라 부른다. 상태가 심상치 않은 분재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육인길 44



사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일상 풍경
블룸블루

손바닥만 한 분재부터 키가 미터를 훌쩍 넘는 관엽식물까지,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식물 작업실이다. 박현규 대표는 음악 작업실에 들여놓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고 물꽂이를 시도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무에서 뿌리가 나오더니 새순이 돋아났다. 당시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며 숨겨보며 살던 박 대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 작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은 그에게 식물지기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사했다. 서울 필동,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블룸블루는 시원한 통유리창과 단정한 우드 프레임이 먼저 발길을 붙든다. 안으로 들어서면 파란색 카펫이 깔린 공간이 싱그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제각각 개성 넘치는 분재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 대표는 분재가 관상용이 아닌, 사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일상 속 풍경이 되길 바란다. 계절마다 다른 색을 띠는 산앵두나무를 백자에 심고 초록 들판을 연상시키는 이끼를 덮어 완성한 분재는 관찰자를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끈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83



| 4 |

자연을 사랑하는 부부의 창작 공작소

분재가

아내 유희조가 만든 화분에 남편 이재규가 묘목을 심어 파는 분재 숲. 서울 합정동 골목에 자리한 분재가는 2019년, 제주에 살던 부부가 어느 날 마당에서 자라는 풍나무를 집 안으로 들인 데에서 시작되었다. 3년 전 서울로 보금자리를 옮긴 부부는 도예와 원예가 만나 하나의 완결한 세계를 이루는 분재에 뜻을 내렸다. 이 대표가 분재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년 후 나뭇가지의 위치다. 가지 하나를 덜어 낼 때도 3년 뒤의 밀도감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그렇게 세심한 손길과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분재는 관상용 식물을 넘어 '작품'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붓으로 그려 넣은 듯 아름다운 수형에 완벽한 균형미를 이루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온함을 안겨 준다. 도자기 클래스를 이끄는 유 대표는 흐린 날의 구름 같기도 하고 버드나무가 후수에 비친 것 같기도 한, 지극히 자연적인 색을 화분에 표현한다. 뒷마당 텃밭에서 모은 나뭇잎이나 풀을 흙 위에 올려 무늬를 내고 불에 구워 만든 펜던트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분재가만의 자랑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8길 42 문의 02-6396-0422

| 5 |

식물을 매개로 세상의 안부를 묻는

서간

낮은 한옥과 붉은 벽돌 건물이 어깨를 맞댄 서울 종로 필운대로 골목, c자형 한옥에 동지를 틔운 서간은 식물을 매개로 세상의 안부를 묻는 스튜디오이자 분재 소름이다. 서간(書簡)은 '소식을 알리는 편지'라는 뜻의 한자어로, 유상경 대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 있는 식물들이 문득 자신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져 지어 두었던 이름이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나무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자연 수형'이 유 대표의 분재 철학. 그는 스스로를 식물의 성장을 돕는 편집자라 이르며, 야생의 생명력이 깃든 나무와 화분, 돌, 이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완성한다. 그래서일까, 유 대표의 분재는 이 작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탄생의 순간을 상상하게 한다. "나무의 형태는 특정한 풍경을 담고 있어요. 나무 각각이 지닌 특성과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분재의 핵심입니다." 서간에서는 선이 가늘고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한국 전통 분재와 함께 국내 작가들의 공예품도 만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인터뷰 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느린 호흡으로 생명과 교감하는 소규모 분재 클래스도 진행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15 문의 070-8064-7362



행신역 맛집 탐험

2004년 KTX가 개통한 후
22년 동안 한국 철도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해온 행신역.
기차역 바로 앞 골목에서
철도인과 여행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집 여섯 곳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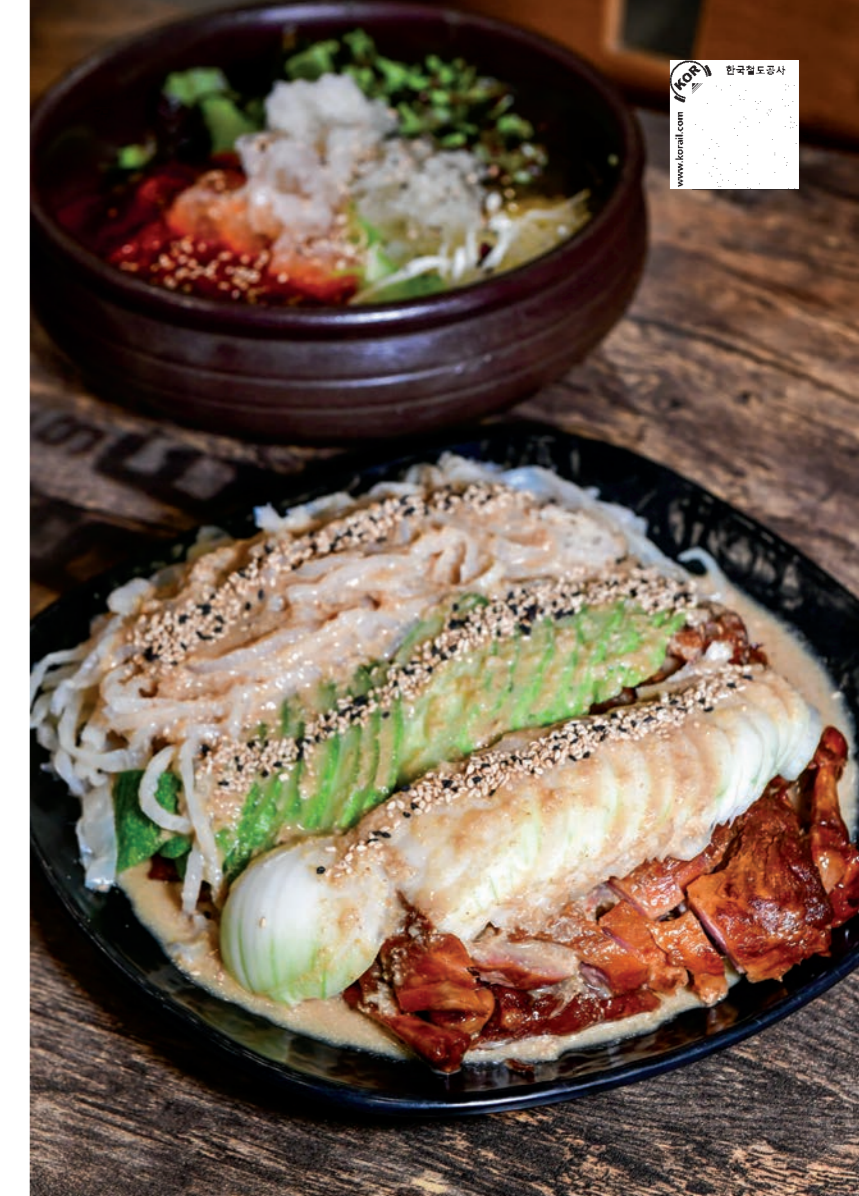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행신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한식과 전통주의 조화 현대

3년 전 임한술 대표가 직장 생활을 접고 문을 연 현대는 한식과 전통주의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얀 천으로 나뉜 프라이빗 좌석과 나무의 따스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리에 앉은 순간 마음이 푸근해진다. 대중성과 창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현대의 요리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대표 메뉴는 진한 고기 육수에 아롱사태와 스지, 싱싱한 채소를 더해 끓인 아롱사태 스지 전골, 향긋한 미나리와 가리비 관자를 바삭하게 구워 낸 관자 미나리전이다. 제철 식재료의 싱싱하고 건강한 맛을 한 그릇에 담은 토마토 바지락찜과 문어 봄나물 샐러드도 놓칠 수 없다. 강릉소주, 황금보리, 고소리술, 삼해소주 등 지역 대표 전통주와 함께 와인, 위스키, 하이볼까지 주류를 다양하게 갖춰 취향에 따라 음식과 페어링하면 근사한 다이닝이 완성된다. 행신동의 느릿한 밤 풍경을 배경 삼아 술과 안주를 즐기는 시간. 이곳에선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54번길 7-19 문의 0507-1315-3206



행신동 골목에 흐르는 사랑과 연대 쏘머럽

“So much love/ 너와 나 사이엔/ 남들 닿지 못할 깊이가 있어.” 인디 밴드 검정치마의 노래 'Big Love'는 이렇게 시작한다. 첫 소절 'So much love'에서 이름을 딴 카페 쏘머럽은 행신동을 찾는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4년 전, 김혜선·김정환 부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망해 보자'는 배짱으로 문을 연 이곳은 커피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유쾌한 아지트가 됐다. 고구마 파이, 순우유 케이크 등 손님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굽고, 기념일마다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나누며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정성스레 만드는 음료도 이곳의 인기 비결. 여름날의 갈증을 씻어 주는 토마토 바질 에이드, 진한 플랫 화이트에 그린티 아이스크림을 얹은 말차 플랫은 쏘머럽을 다시 찾게 만드는 시그너처다. 이곳에서는 종종 플리마켓이나 작은 음악회, 전시 등이 열리기도 한다.



142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35번길 5 문의 0507-1472-5114

행신동 터줏대감 맛집의 자존심 행신족발

2013년에 문을 연 행신족발은 행신동의 터줏대감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현재 행신족발을 이끄는 사람은 손은혁 대표. 2017년부터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족발을 삶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통 팔각이 족발 맛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저는 팔각 향을 그리 선호하지 않아 양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하루 세 번, 2시간 간격으로 20족의 족발을 정성껏 삶는 그는 강한 향신료 대신 원육의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 물엿만으로 갈끔한 단맛을 낸다. 유행을 타지 않는 가장 한국적인 족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팔각의 양을 줄인 대신 족발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로 각종 약재를 사용한다. 질 좋은 약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 가장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약재 보관 창고로 쓰며 정성을 다한다. 손 대표가 족발만큼이나 자신 있게 내놓는 또 다른 메뉴는 보쌈이다. 당일 첫 족발 육수로 삶아 풍미가 살아 있는 데다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이 완벽한 오겹살을 사용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다. ‘멀리 사는 지인에게도 이 맛을 보여 주고 싶다’는 손님의 찬사가 이어지는 건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조리하는 손 대표의 진심 덕분이다. 음식 하나하나에서 행신동 터줏대감 맛집의 자존심이 느껴진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문의 0507-1497-3421





우리 동네 생면 파스타 맛집 수비토

밀가루와 달걀로 반죽해 건조 과정 없이 바로 요리하는 생면 파스타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매력적이다. 안성모 대표가 2021년에 문을 연 수비토는 행신동에서 생면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오너 셰프가 요리와 손님 응대를 동시에 하는 바 테이블에 앉아 조리 과정을 지켜 보는 즐거움도 있다. 안 대표는 수제 생면은 물론 식전 빵과 뇨키, 소스, 치킨 스톱까지 핵심 재료를 직접 만들어 맛의 깊이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대표 메뉴는 고구마 크림 뇨키. 감자로 정성껏 반죽한 뇨키와 달콤한 고구마 크림 소스, 얇게 구운 치즈 크러스트가 삼박자를 이뤄 풍성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춘다. 매장에서 바질 페스토, 치미추리 등 수제 소스를 별도로 판매해 수비토에서의 특별한 미식 경험을 집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문의 0507-1444-6625



www.borail.com
한국발도공사

4월의 낭만이 머무는 곳 사월의주방

지난 10년 동안 행신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준 퓨전 선술집. 양식을 전공하고 호텔과 주류 회사에서 실무를 쌓은 김선진 대표가 오너 셰프로 맹활약하고 있다. 사월의주방 메뉴판은 김 대표가 아내와 함께한 여행의 기록이나 다름없다. 인기 메뉴인 아보카도 참치 타르타르는 오키나와 여행에서 맛본 참치 요리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카몰레를 조합해 개발했다. 고기를 듬뿍 넣은 마파두부는 이탈리아 여행 중 우연히 들른 중식당에서 경험한 맛을 재현한 것. 양파를 먹지 않는 아내도 좋아하는 마파두부였는데, 이를 고려해 연두부와 고기 위주로 레시피를 개발했다. "오픈 초기, 늦은 밤 행신역에 내리면 이곳만 불이 켜져 있어 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손님들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변 가게들이 수십 번 바뀐 지난 10년 동안 행신역 앞 골목을 묵묵히 지켜 온 사월의주방. 이곳은 앞으로도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변함없이 따스한 불빛이 되어 줄 것이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21 문의 0507-1378-4852



취향 저격 스페셜티 전문점 커네스 브루잉스팟

커네스 브루잉스팟(이하 커네스)은 50여 종의 브루잉 커피를 선보이는 스페셜티 전문점이다. 클래식 원두부터 평키한 원두까지 폭넓은 라인업이 가장 큰 매력. 커피 교육자로 활동하던 차미경 대표의 철학이 커피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브랜드명은 커피, 네추럴(차 대표가 좋아하는 원두 프로세싱 방식), 스페셜티의 앞 글자를 따와 조합한 것이자 튀르키예 고어로 태양을 뜻한다. 커네스에서는 다크 초콜릿 느낌의 진하고 묵직한 커피 M블랙, 견과류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의 질감이 느껴지는 커피 브라운, 재스민 향과 열대 과일의 향미가 우아한 게이샤 블렌드 등 취향에 맞는 커피를 음미할 수 있다. 공간은 모던하면서도 커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꾸며졌다. 바 테이블에 앉으면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커피 내리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커네스의 수준 높은 스페셜티는 서울 연남동의 2호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53번길 8-4 문의 0507-1351-6233





행운을 삽니다, 러키슈머

불안과 위기감이 커진 시대,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행운을 사기 시작했다.



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유튜브 타로 채널과 SNS 운세 콘텐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점술 상담 같은 비공식 소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점성술이 웰니스 문화의 일부로 소비된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요가와 명상, 마인드풀니스처럼 정신적 웰빙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일부 정신 건강 상담에서는 점성술을 내담자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달의 위상에 맞춘 운동법이나 식단 루틴을 제안한다.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Sephora)도 별자리와 점성술의 네 가지 원소에서 영감을 얻은 립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혈액형 성격론을 MBTI처럼 소비했고, 신사와 절에서 제비뽑기로 운세를 점치는 '오미쿠지' 문화도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까지 풍수와 점술을 미신으로 규정해 금지했다가 1980년대 경제 개혁·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풍수를 하나의 학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좋은 기운을 얻겠다며 베이징과 상하이의 유명 사찰 앞에 줄을 서고, 점성술 결과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 공유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IT 산업 성장이 점성술 열풍을 이끌었다. 2000년대부터 영어권 온라인 점성술 서비스의 상당수를 인도 IT 인력이 구축하면서 관심이 함께 높아진 것이다. 아스트로토크(Astrotalk) 같은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인도 점성술 앱도 여럿 존재하고, 24시간 실시간 점성술 상담과 화상 통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인도 구글플레이에서는 헬스케어 앱보다 점성술 앱의 다운로드 순위가 더 높을 정도다.

적은 비용으로 얻는 즉각적인 위안

점성술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불확실한 시대가 자리한다. 세상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월급만으로 자신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빠르게 부를 늘리려는 2030세대도 많아졌다. 여기에 전쟁과 기후 위기,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별자리와 사주, 타로처럼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행운에 기대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점성술 시장 소비자의 약 3분의 2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감정적 위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즉각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러키슈머가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다. 요즘 온라인 운세 플랫폼에서는 990원만 내면 간단한 사주풀이를 볼 수 있다. 과자 한 봉지보다 저렴한 값이다. 과거에는 용하다는 점집을 직접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앱만 열면 언제 어디서든 오늘의 운세를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전문가 유료 상담 서비스 엑스퍼트(eXpert)에서도 운세·사주와 타로 분야가 꾸준히 인기 카테고리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기보다 MBTI나 별자리, 사주를 통해 공략부터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아졌

다. 적어도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만큼은 명확하게 설명되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진 영향도 있다. 2024년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다. 종교가 예전만큼 위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 상담은 비용이나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인간관계에 피로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혼담과 혼술 문화도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 그 빈자리를 점성술과 운세, 행운 굿즈가 메우고 있다. 무엇보다 앱은 즉각적으로 답을 준다. 빠르고 확실한 위안을 얻는 데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운을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맥이 멎게 키텔링과 부적 파우치, 행운 팔찌 같은 굿즈 소비가 활발해졌고,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풍수자리를 반영한 '운테리어'가 유행한다. 관악산의 호림사나 강남의 봉은사처럼 운이 좋아진다고 알려진 장소를 찾아가 인증 사진을 남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과거 MBTI를 자기소개처럼 활용했다면, 이제는 '목(木) 기운이 강하고 토(土) 기운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사주를 설명하기도 한다. 오행에 맞춰 취미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성세대가 구시대 문화처럼 여겼던 사주가 Z세대에게는 새로운 놀이이자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행운을 부른다

러키슈머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소비자다. 같은 제품이라도 '행운'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히면 더 잘 팔린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작은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운세 소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재미와 자기 위안 수준에서 즐기는 것이 좋다. 취업 운을 높여 준다는 굿즈를 산다고 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MBTI나 공감이 잘 맞더라도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가지 어렵다. 결국 행운은 소비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행운을 끌어오기 위해 스레기를 좁고 작은 선행물 실천한다고 한다. 장원영의 '러키비키' 역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유행어다. 어쩌면 행운은 거창한 부적보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운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나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 가능한 부자라면 행운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취업과 이직, 연애와 결혼, 부동산 청약과 주식 투자 같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운을 기대한다. 이제 사람들은 행운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신조어도 등장했다. 러키슈머(luckysumer). 영어로 행운을 뜻하는 '러키(lucky)'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친 말로, 행운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를 뜻한다.

러키슈머는 세계적 흐름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에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점성술 시장은 2024년 128억 달러에서 2034년 2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점성술 시장 역시 약 1조 4000억

김용섭은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3000회 이상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고, 트렌드 전문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운영한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6: 인간증명 + 경험사치> <머니 트렌드 2026> <공저> <프로페셔널 스텝트> <연컨택트> 외 다수가 있다.

NEWS

VIDEO



만다린 오리엔탈 라고 디 코모 2026 시즌 공식 개관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 휴양지로 손꼽히는 코모 호수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탈 라고 디 코모가 2026년 시즌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시즌 개관을 맞아 메인 레스토랑 라리아를 전면 리뉴얼했으며, 마시밀리아노 블라스네 총괄 셰프가 로컬 식재료에 일본식 그릴 기법을 접목한 현대적 이탈리아 미식을 선보인다.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111스킨과 협업한 스파 프로그램과 투어 패키지도 새롭게 공개했다.

홈페이지 mandarinoriental.com/ko-kr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 한국 음악가 활약 주목

체코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가 6월 4일까지 프라하 전역에서 열린다. 올해로 81회를 맞은 축제는 지휘자 사이먼 래틀, 상주 아티스트 바바라 헤니건 등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글로벌 클래식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음악가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했고, 작곡가 진은숙은 현대음악 플랫폼 '프라하 오프스프링' 상주 작곡가로서 공연 및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visitczechia.com/ko-kr

필리핀 관광부 2026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참가

필리핀 관광부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농림부, 상무부와 함께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참가했다. 한국어로 제작한 관광 지도와 미식, 웰니스 등 테마형 e-브로슈어를 QR코드로 제공하고, 바롱 타갈로그와 필리피어나나같은 전통 의상 착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필리핀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홈페이지 philippinetourism.co.kr

<간소한 삶>

미국의 '소박한 삶을 위한 모임'에서 발행한 매거진 <플레인(Plain)>에 실린 글을 한데 엮은 책이다. 농부와 시인, 엄마와 할아버지, 기자와 환경운동가 등의 저자들이 풍요로운 삶의 경험을 27편의 에세이로 들려준다. '자연과 가까이 계절 느끼기' '진실한 우정 가꾸기' 'TV로부터 도둑맞은 시간 되찾기'까지 유쾌하고 생기 있는 삶의 이야기가 메마르고 상처 입은 영혼에 해독제가 되어 줄 것이다.

스콧 새비지 역음 강경이 옮김 느린걸음 펴냄

<고요히 꽃잎을 바치다>

오랜 시간 정원을 찾다니며 공부한 29년 차 정원사이동협이 12년 동안 살려본 선암사를 사진과 글로 풀어냈다. 저자는 선풍(禪風)이 엄격한 도량의 일상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산사의 식물과 풍광을 기록하고 소회를 남겼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1년 열두 달 비슷한 듯하지만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선암사와 선암사가 가는 길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으로 훑을 수 있다.

이동협 지음 목수책방 펴냄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국내 SF 문학 열풍을 이끈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이 감성적인 SF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 유투피아를 등지고 불안정한 세계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섬세하게 펼쳐진다. 밴드 새소년의 황소윤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작품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완성했다. 6월 3일 개봉. 목소리출연 김향기, 박지후 감독 허평강

<상자 속의 양>

아이를 잃은 부부 앞에 죽은 아들과 똑 닮은 7세 휴머노이드 카케루가 나타난다.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카케루는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까지 대체하려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디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6월 10일 개봉.

출연 아야세 하루카, 다이고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디스클로저 데이>

<E.T.> <우주전쟁>의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오랜만에 SF 신작을 선보인다. 정부가 수십 년간 숨겨 온 비밀이 드러나며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다룬다. 2017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국 국방부의 비밀 UFO 조사 프로그램 실태에서 출발해 현대사회의 음모론과 정보 독점 문제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했다. 6월 10일 개봉.

출연 에밀리 블런트, 조쉬 오코너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토이 스토리 5>

'토이 스토리' 시리즈가 7년 만에 극장가를 찾는다. 스마트 태블릿 릴리페드의 등장으로 장난감은 점점 아이들에게 소외당한다. 위기를 느낀 제시는 우디와 버즈를 불러 모아 꼬마 소녀 보니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모험에 나선다. 디지털 시대 속 장난감의 존재 의미를 재기 발랄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6월 17일 개봉.

목소리출연 톰 헉스, 조안 쿠삭 감독 앤드류 스탠튼, 맥케나 해리스

<이반리 장만옥>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이반리로 돌아온 만옥은 재기를 꿈꾸지만, 전남편이 이장으로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 결국 직접 이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특유의 명랑함과 넉살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편견과 혐오 속에서 도나답게 살아가려는 만옥의 여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 냈다. 6월 10일 개봉.

출연 양말복, 김정영 감독 이유진



Information.

KTX

제15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기차여행' © 정상호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 공정 거래 문화 조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등급 달성



한국철도공사가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평가 대상인 4개 사업(고속, 일반, 광역, 화물)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

KTX와 SRT, 9월 통합 운행 목표로 시운전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KTX와 SRT 열차를 연결 운행하는 시범 중련 운영을 앞두고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4회 시운전을 시행했다. 이후 이용객들이 탑승한 시범 중련 운행 열차는 5월 15일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통합 운행에 대비해 열차, 선로, 영업 설비의 호환성을 점검해 왔다.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공유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지역 축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전국 280여 개 역의 맞이방, 고객 대기실 등에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에 연결되는 QR코드 포스터를 게시한다.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는 축제 장소, 기간, 행사 프로그램 및 기차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공유 달력 서비스다. '구글 캘린더' 구독 기능을 이용하면 매달 업데이트되는 일정을 전달받을 수 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렌
(어플리케이션 / 109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 속 도움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청소년·청년·여성의 고민

청소년 상담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문자상담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 앱 / 1661-5004 문자상담	다들어줄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전화상담	1588-9128
국방헬프콜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APP상담 / 카카오톡	1303
온통청년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www.youthcenter.go.kr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1366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신문 Newspaper</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 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간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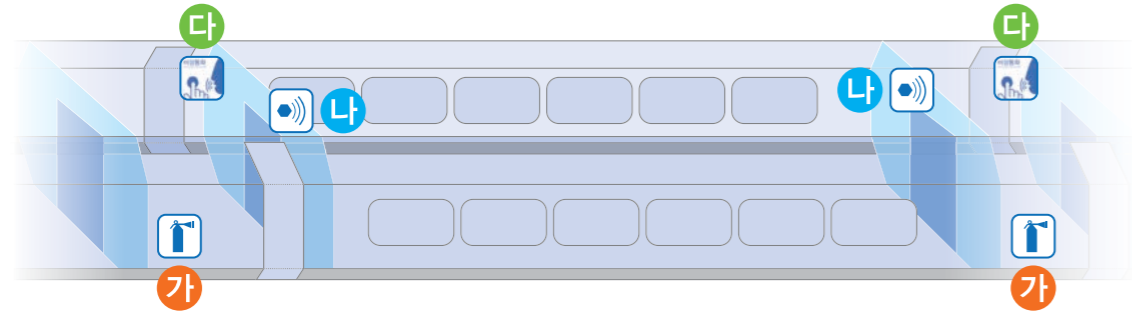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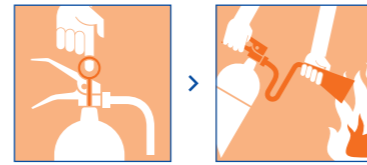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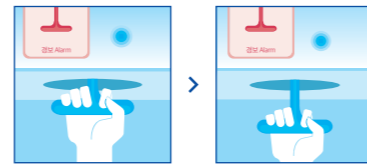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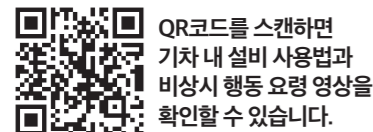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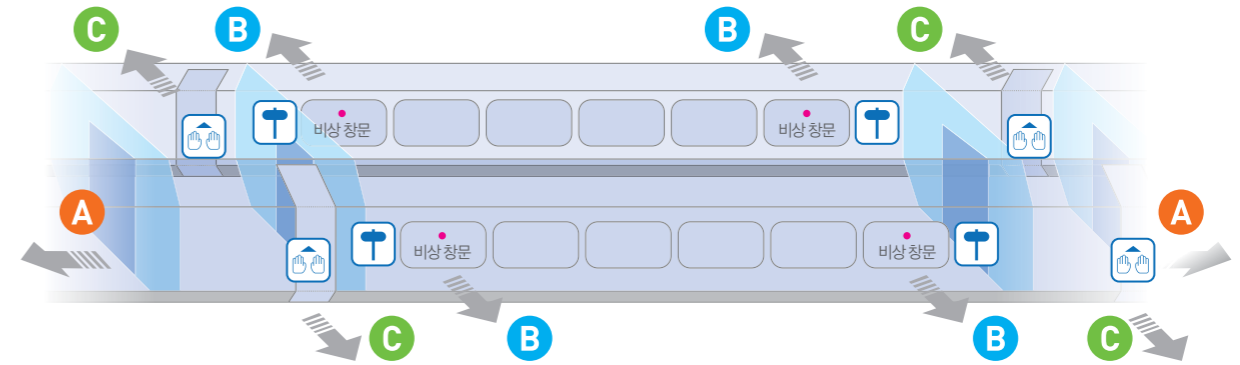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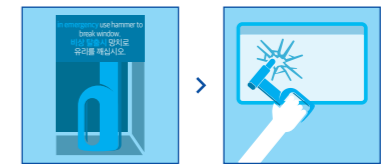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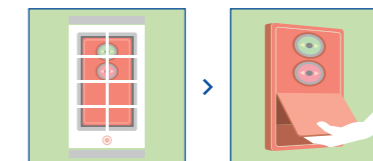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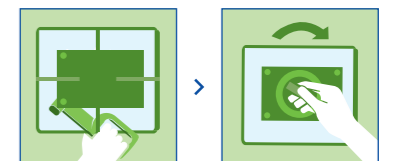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음악 듣기

흥이삭과 떠나는 음악 여행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싱어송라이터 흥이삭이 여섯 번째 EP 앨범 <Castle In The Air>로 돌아왔다. 미완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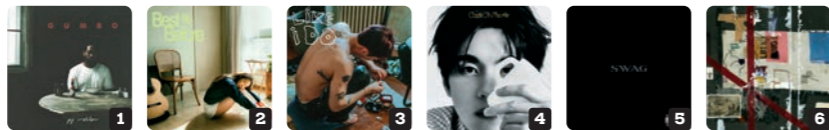


흥이삭

짙은 음색과 독보적인 감성으로 긴 여운을 남기는 싱어송라이터. 2013년 제24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자작곡 '봄아'로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슈퍼밴드>와 <싱어게인3>에서 각각 최종 4위와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진솔한 가사를 담아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지난 4월에 발매한 EP 앨범 <Castle In The Air>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에서 출발해 한층 깊어진 감정선과 확장된 사운드로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표곡으로 '사랑은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있을게' 등이 있다.



여행의 철학을 담은 플레이리스트



1 How Deep Is Your Love PJ 모던

내게 기억이 있기 전부터 존재한 노래가 이상하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자를 위해,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노래를 고른다면 이 곡을 추천하고 싶다.

2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안신애

곡을 만든 때와 발매한 시기는 다르지만 '타임리스'라는 것이 지닌 분위기는 비슷하다. 'How Deep Is Your Love'처럼 언제 들어도 친근하고, 나를 새로운 공간으로 데려다주는 노래다. 익숙한 그루브에 실린 자유로운 목소리가 좋다.

3 Like I Do 조권

원하는 대로 살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여행 아닐까. 여행은 스스로에게 충실한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상시엔 주저하던 일도 여행지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해낸다. 이 음악이 그런 여행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4 Doesn't Matter 흥이삭

현재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날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면 어떤가. 머물던 곳을 떠난 이의 표정은 그저 자유롭지 않다.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타이틀곡이다.

5 Daisies 저스틴 비버

때론 절대 갈 수 없고 달지 못할 곳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를 다른 세상과 이어 주는 음악을 고른다. 가만히 듣다 보면 바라던 곳에 도착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 아티스트의 곡이 그렇다.

6 Famous 헤일레이커

한 장소에 머무는 동안 노래를 감상하면 그 장소에 색채가 임혀진다. 그 색채가 당신의 취향이라면 온전한 휴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이 게스트 하우스 주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공간이 만족스러웠다면 좋은 후기 남겨주세요.

© 아카이브아일랜드, 빅스, 스포티파이

2026. 6. 13. (토) - 21. (일)

동해시 삼화동 무릉별유천지 일원

별빛이 피는 라벤더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 출렁다리가 어우러진 강원도 동해시의 추암해변 일원.